

碩士學位論文

濟州道 初等學生의 孝 意識 調查 研究

- 初等學校 6學年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梁 邦 柱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高 寅 皓

1999年 8月

濟州道 初等學生의 孝 意識 調查 研究

- 初等學校 6學年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梁 邦 柱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6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 專攻



高 寅 皓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9年 7月

審 查 委 員 長

印

審 查 委 員

印

審 查 委 員

印

[국문초록]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의 효 의식 조사 연구

고 인 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양 방 주

본 논문은 효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실천 덕목인 효 요소를 선행연구물과 문헌을 통하여 9가지로 추출하고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들의 효 의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응답자의 독립 변인으로 학생 성별, 가족 상황, 친척의 교류 상황, 가족이 믿는 종교, 보호자의 학력, 보호자의 직업 6가지를 사용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종속 변인으로서는 <보신: 건강의 중요함>, <공경: 부모 존경과 가족애>, <순종: 가정의 질서와 조화>, <시봉: 봉사와 인간 존중>, <양지: 부모 존경 의식>, <봉양: 부모 은혜 보답>, <간언: 정의와 진실>, <봉사: 가정의 전통과 조상 숭배>, <양친: 명예 존중과 성실> 9가지 효 요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셋째, 효 요소는 다시 행동적인 면, 정의적인 면의 2가지 의식 영역으로 나누어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넷째, 조사 결과의 처리 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코드화 하여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백분율, χ^2 , df, p 를 구하기 위해 전산 처리하였다.

다섯째, 제주도 전체의 초등학교 학생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별 인원수를 고려하여 17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남 315명, 여 274명, 모두 5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들의 <확실한 긍정적 반응> 은 행동적인 면에서 보신, 봉양, 순종, 시봉, 간언, 양지, 공경 순 이었으며, 정의적인 면에서는 시봉, 봉사, 공경, 양친, 봉양, 보신, 간언, 양지, 순종 순 이었다. 이를 통해서 보면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 사이에 서로 다른 의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2. 변인 별로 분석 결과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성별에 따른 결과에서 여학생이, 행동적인 면에서, 공경, 순종 그리고 정의적인 면에서 공경, 순종, 양지를 제외한 모든 요소에 남학생보다 앞서고 있다.

둘째, 친척 교류에 있어서 가정에 친척이 자주 왕래하는 것이 학생의 효 의식 함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셋째, 보호자의 학력에서 보면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효 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동시에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늘날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들의 효 의식 수준은 성인들이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예절 의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를 토대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효 요소와 그렇지 못한 효 요소를 잘 조화하여 교육하고, 학생 성별과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한다면 효 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학생의 인성교육이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본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효의 개념	4
2. 전통적 효의 요소	8
3. 현행 초등교육 과정의 효 덕목	23
III. 조사 방법	26
IV. 조사의 결과 및 해석	31
V. 결 론	66
참고문헌	73
Summary	76
부 록	79



표 목 차

〈표 II- 1〉 2, 3차 교육 과정의 덕목	23
〈표 II- 2〉 4차 교육 과정의 덕목	24
〈표 II- 3〉 5, 6차 교육 과정의 덕목	24
〈표 II- 4〉 7차 교육 과정에 나타난 덕목	24
〈표 II- 5〉 전통적 효의 실천 요소와 현대적 효의 비교	25
〈표 III- 1〉 조사 대상 집단의 학생 수	26
〈표 III- 2〉 질문지의 구성 내용 및 문항 수	27
〈표 III- 3〉 기초 조사 결과	29
〈표 IV- 1〉 보신에 대한 행동적인 면	31
〈표 IV- 2〉 보신에 대한 정의적인 면	33
〈표 IV- 3〉 공경에 대한 행동적인 면	35
〈표 IV- 4〉 공경에 대한 정의적인 면	37
〈표 IV- 5〉 순종에 대한 행동적인 면	39
〈표 IV- 6〉 순종에 대한 정의적인 면	41
〈표 IV- 7〉 시봉에 대한 행동적인 면	43
〈표 IV- 8〉 시봉에 대한 정의적인 면	45
〈표 IV- 9〉 양지에 대한 행동적인 면	47
〈표 IV-10〉 양지에 대한 정의적인 면	49
〈표 IV-11〉 봉양에 대한 행동적인 면	51
〈표 IV-12〉 봉양에 대한 정의적인 면	52
〈표 IV-13〉 간언에 대한 행동적인 면	54
〈표 IV-14〉 간언에 대한 정의적인 면	56
〈표 IV-15〉 봉사에 대한 정의적인 면 (1)	58
〈표 IV-16〉 봉사에 대한 정의적인 면 (2)	60
〈표 IV-17〉 양친에 대한 행동적인 면 (1)	62
〈표 IV-18〉 양친에 대한 정의적인 면 (2)	63

I. 서 론

현대 사회는 구조적 복잡성과 고도의 가변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가치관의 혼란 나아가서는 가치관의 부재라는 현상에 처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세기말적 상황과 맞물려 인류에게 많은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의 현실도 예외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 한국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반세기도 안 되는 단시일 내에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대전환을 이룩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이러한 산업체제와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유래하는 개인들의 도덕률·가치관·윤리의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일제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과 더불어 광복에 이어 서구문화의 맹목적 수용과 산업화로 인하여 세계체계에 편승한 국제화는 우리의 가치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¹⁾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가정 기능의 약화 내지는 붕괴이다. 이로 말미암아 개개인은 정체성이 상실되고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 안식처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사회는 그 기본적인 단위체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됨으로써 구조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런데 가정을 중시하는 전통은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미덕으로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루는 근본 토대이었다. 사회 윤리의 기반은 가정에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가정을 중시하며 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통 윤리 사상을 회복하여 현대적으로 생활화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한국의 전통 윤리 사상은 인간의 선한 본성과 가족적 인간관계를 토대로 하여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인격체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인정에 기반하는 禮的 질서의 구현을 추구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성의 상실, 물질 위주의 경쟁 원리로 인한 사회적 병리 현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우리에게 의해 형성·계승되어 온 것이어서 쉽게 생활화할 수 있고 새로운 사상과의 결합을 통해 현대 사회의 윤리 사상을 정립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전통 윤리의 핵심은 바로 효 사상이라 할 수 있다.

1) 이광규(1996), 「사회개혁과 시민의식」, 아산문화재단, p.147.

孝는 자식된 자의 마땅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 봉사하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다. 한 인간은 부모에 의해 존재 근거를 가지므로 부모에 대한 효의 행위는 모든 행위의 근본이 된다. 이러한 효는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경로 사상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孝는 전통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인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는 바, 효는 우리의 공통적인 문화적 규준이며 이에 준거해서 우리 부모와 연장자들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도덕성이 판정되어지고 있다. 즉 효는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인 사회적 규범과 합치되는 우리의 중요한 가치이며 이 규범에 준거해서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교화되어지는 것이다.²⁾

효 사상의 현대적 재정립과 실천을 위한 노력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청소년 교육이다. 다시 말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 교육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전통적인 면에서 그리고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효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웃어른들의 모범과 훈화 및 체험을 통해 자녀들이 습관화되고 내면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작된 이래 계속 효 교육이 실시되어 왔지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문제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하나는 청소년들을 제대로 이해하여 그에 맞는 내용과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효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하여 효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그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 설문지 작성 및 조사, 결과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론적 연구에 있어서는 효의 개념을 전통적인 면과 현대적인 면에서 고찰하며 다음으로 전통적인 효의 요소를 추출하고 그것을 오늘날 초등학교 과정에서 교육되는 덕목들과 비교하였다. 설문지는 후자의 두 가지 결과를 토대로 기존 학위 논문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전통윤리의 현대적 조명」, 천풍인쇄주식회사, p. 120

에서 사용하였던 것들을 참고하여 재작성하였다.

구체적 실천 덕목을 중심으로 효 요소를 추출하였는데 김익수(1983)의 견해에 따라 9가지를 정하였다. 김익수는 그것을 「효경」에 의거하였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유학적인 표현과 논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불교 또는 민족 고유 사상의 효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각 요소마다 세가지 교육목표 영역 중에서 인지적 영역을 제외한 정의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의 두가지 질문을 하였다. 그 순서는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행동적 영역의 질문을 먼저했다. 질문의 표현 형식은 도덕과의 목표 서술 방식에 의거하였다.

설문의 대상은 제주도 전체 초등학생을 염두에 두고 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별 학생수에 비례하여 시·군, 동·서 지역, 도심·외곽 지역별로 고루 분포하도록 17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효의 개념

한국 전통사회에서 효(효도)는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었다. "불효"라는 낙인이 찍히면 인간으로서 일차적인 자격을 잃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불효라고 인정되는 아들이나 며느리를 마을에서 완전히 추방해 버리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만큼 한국인의 사고 속에, 윤리관 속에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³⁾ 이것은 효를 문자화하여 기록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유교 사상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 민족에게는 효 사상이 뿌리내려 생활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효에 대한 개념, 이론 체계, 방법 등에 대한 연구는 유교적인 데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효의 어의를 살펴보면, 효도라는 말이 기록상 처음 쓰여지기는 「漢書」의 “永思孝道”라는 문구라 한다.⁴⁾ 효를 자의로 풀면, '父'와 '子'의 회의문자로서 자녀가 노친을 받들어 모심을 의미하고, 어의로 말하면 善事하는 덕행을 의미한다.⁵⁾ 이를 통해서 보면, 효의 대상은 살아있는 친부모이나 더 확충되어 모든 조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인간이 역사적 존재로서의 자각을 달성하는 일'로 규정되는 것이다.⁶⁾ 뿐만 아니라 친척과 이웃 즉 사회적 웃어른으로 확대됨으로써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당연한 도리가 된다.

효 사상의 문헌적 기록을 살펴보면, 최초라 할 수 있는 것은 「書經」에 나오는 五典이다. 이 五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주희의 해석에 따른 五常說로서 맹자의 오류를 가리키며, 다른 설은 바로 “아버지는 친하고(父親), 어미는 자애롭고(母慈), 자식은 효도하고(子孝), 형은 우애하고(兄友), 아우는 공손하다(弟恭).”라고 하는 것인데, 후자의 내용은 孝·梯·慈라는 가족 윤리의 근간이 된다.⁷⁾

효 사상의 체계화 과정을 살펴보면, 공자는

첫째, 효의 본유 관념으로서 공경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봉양하는 일 뿐만

3) 이영호(1977), 「한국인의 가치관」, 일지사, p.139.

4) 고사성어사전간행회 편(1961), 「고사성어사전」, 학원사, p.1210.

5) 안창범 (1978), “한국중효사상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p. 8.

6) 최근덕(1995), 「유학강의」, 성균관출판사, p.34.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5)」, 웅진출판주식회사, p. 638.

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敬)이 관건이 되며, 웃어른에 대한 예절로는 얼굴빛, 즉 존경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하였다.

둘째,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효경에서 “우리의 신체는 머리털에서 살갓에 이르기까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손상할 수 없음이 효의 비롯이니라.”라고 한데서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셋째, 효는 공자로부터 이미 사후에까지 확산된 개념으로 드러난다. 즉, “살아계실 때도 예로써 섬기고, 장례도 예로써 치르고, 제사도 예로써 모시라.” 하였으니, 유교의 상 제례가 조상 숭배사상과 결합하여 효 사상의 일부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맹자는 先秦時代 효 관념의 정립자라 할만큼, 공자의 효 사상을 유가사상의 중심사상으로 굳게 다져 놓았다. 효를 ‘百行的 根本’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자의 지극한 것으로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의 지극함은 천하를 가지고 봉양하는 것보다 더 지극한 것이 없다”⁸⁾라고 하여 제왕의 大孝를 말함과 동시에 입신양명을 효의 중심요소로 부각시켰다.

그 후 秦, 漢 대를 거치면서 사회적·정치적 변화에 따른 사상적 변화에 따라 효 사상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三綱의 확립으로 인해 상하관계가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고착화된 점과, 忠과 상호 충돌을 낳게 된 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충신이 효자의 문에서 나온다.”고 하여 효를 근본으로 하여 서로 조화시키게 되었다. 즉, 효는 자신의 신체를 잘 보존하고 부모를 잘 봉양하며 후대를 계승해야 한다는 가족사회 바탕의 윤리와 국가나 군주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는 국가적 차원의 윤리도 된 것이다.

한편, 경을 효의 기본 이념으로 삼은 것은 공자로부터 비롯하였다.

맹자는 공자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仁者는 愛人하고, 有禮者는 敬人하나니”⁹⁾

이렇듯 어진 사람은 남을 사랑하며 예를 아는 사람은 남을 공경한다는 효친의 道로서의 애경사상은 인간의 道로 정립되었고, 그 중에서도 경 사상은 宋儒(송유)들에 의하여 철학적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었다.¹⁰⁾

중국 고대의 효 사상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효에 관한 대표적 고전인 「효경」

8) 「孟子」, 萬章章句 上: 孝子之至 莫大乎尊親 尊親之至 莫大乎以天下養 爲天子父 尊之至也 以天下養 養之至也

9) 김문해 역(1991), 「맹자」, 일신서적출판사, p.232.

10) 양근석(1994), 「한국사상과 윤리」, 형설출판사, p.213.

의 저작이다. 효경에서의 효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효를 덕의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효의 방법으로는 직접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사친, 그리고 간접적이고도 중국적인 입신행도(立身行道)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윤리 도덕인 효를 “하늘의 불변한 기준이요 땅의 떳떳함이다.”¹¹⁾라는 우주적 원리로 승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교화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효경」의 전문 내용을 요약하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효도라고 한다. 사람의 행동에 효도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요순은 큰 성인이지만, 요순의 도는 효와 제(悌), 즉 효도와 우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도는 이 도는 우·탕·문·무·주공을 거쳐 공자에게 전해졌으니, 이것은 한결같이 효와 제였다.”¹²⁾라 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짐작컨대 동양에는 과거부터 효 사상이 깊숙이 잠재되어 있었고, 행동으로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먼저 「효경」에서 효의 始終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효경의 개종명의장 1장에서 “효라는 것은 덕의 근본이며 가르침이 생겨나는 바탕인 것이다. 사람의 신체와 머리털과 피부는 모두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일이야말로 효의 시작인 것이다. 몸으로 올바르게 세우고 도를 행하여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님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끝맺음인 것이다. 효라는 것은 아버이를 섬기는데서 시작하여 다음으로는 임금을 섬기고 끝으로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다. 너의 조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그 덕을 수득하여야 한다.”¹³⁾라 하였다.

부모가 물려준 신체의 보전으로부터, 그의 행적에 관한 후세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효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효는 천자·경대부·서인 등 모든 신분 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윤리 규범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효는 중요한 ‘至德要道’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행실에 나타나는 것을 道라 하고 자기 마음에 스스로 터득하는 것을 德이라 하는 것이므로, 덕의 지극한 것이 바로 도의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도의 가장 중요한 것에서도 그 첫째를 孝라 하였기 때문에, 지덕이라는 것도 결국 효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효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 정리한 오늘날의 효 개념을 보면,

11) 황병국 역(1990), 「효경」, 해원출판사. p. 66.

三才章：天之經也，地之誼也。

12) 황병국, 앞의 책, p.23.

13) 「孝經」, 開宗明義章：夫孝，德之本也，教之所繇生也，身體髮膚，受之父母，不敢毀傷，孝之始也，立身行道，揚名於後世，以顯父母，孝之終也，夫孝，始於事親，中於事君，終於立身。大雅云，亡念爾祖聿修其德。

「새 우리말 큰 사전」¹⁴⁾에서 효도는 ①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효행의 도, ②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이라 하였고, 「한국민족 문화 대 백과 사전(25)」¹⁵⁾에 보면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경애의 감정에 토대를 두고 행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중국 고유의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본래 부모와 자녀간의 효가 도덕 규범이 기초가 되고, 더욱 확대되어 국가로부터 가족에 이르기까지 최우선의 가르침으로 뿌리박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 독특성이 있다. 효가 본래 부모가 살아 있는 자녀가 해야 할 도덕을 의미함에는 변함이 없으나 중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화하여 사후의 영원을 바라고, 자손이 조상의 제사를 끊기게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상 제사는 초혼(招魂)을 의미하며, 사후에도 현세에 돌아올 수 있다고 믿기에 조상 제사가 효의 하나가 된다. 또한 이 제사를 행하는 주체는 자손이기 때문에 자손의 존재가 필요하며, 따라서 자손 특히 남자아이를 낳는 것이 효의 하나가 된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정성을 다하고, 죽은 뒤에는 경애하는 마음가짐으로 조상의 제사를 태만하게 하지 않고, 또한 자녀를 생산하여 제사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 전체가 효”라고 하였다. 또, 유정기 편저 「동양사상사전」¹⁶⁾에 의하면, “효란 사친의 덕행, 事上の 도리, 덕행의 근본, 梯의 類語”라 하였다.

부모의 은혜란 무한하여 값을 길조차 없다. 그러므로 보은의 근거는 낳아 주심과 길러 주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부모의 자애의 발로이기도 하다.¹⁷⁾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종합해 보면 효란 자식이 부모에 대해 공경 봉사함으로써 살아 계실 때는 몸과 마음을 평안케 하여 그 뜻을 받들고 이름을 드높이며, 돌아가셨을 때는 그 유지를 받들며 살아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모시는 것이다. 외적인 면에서 보면, 친자간에 가정윤리의 근본으로 형성된 원초적인 상호관계를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규율하는 일종의 질서인 것이다. 나아가 그 의미가 확대되어 윗사람을 섬기는 경로의 윤리와 국가와 백성간의 충의 윤리를 지탱하는 질서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바로 효는 모든 인간 행동의 근본이라 하겠다.

14) 신기철·신용철(1988),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p.3807.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앞의 책, p. 637.

16) 유정기 편(1965), 「동양사상사전」, 우문당출판사, p.156.

17) 양근석(1994), 앞의 책, p. 212.

2. 전통적 孝의 요소¹⁸⁾

1) 保身

우리의 한 몸을 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자는 말하기를, "신체와 모발과 피부 등은 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니 감히 그것을 훼손하거나 상하게 하는 것이 효도의 처음이니라."¹⁹⁾고 하였으며, 공자의 제자인 맹무백이 효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는 오직 자식의 병을 근심하느니라."²⁰⁾라고 하였다. 즉 부모는 항상 그 자식의 병을 애타게 걱정하므로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효도를 하라는 것이며, 자식은 부모가 자식의 병을 염려하는 것만큼 부모의 병을 염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의 몸이다. 그런데 이 몸을 준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 하여야 하며 공경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완성이 되는 것이다. 공자는 효의 방법에 있어서 '보신하는 효'를 제일 먼저 강조하였다.

우리의 몸은 부모의 肢體이니 즉 신체의 모발에서부터 피부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부모에게서 이어 받은 것이니 자기의 몸을 훼손함이 없이 천수를 누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요, 효의 처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효자는 "어두운 곳에서 일에 종사하지 않으며, 위태로운 곳에 오르지 않는다. 어두운 곳에서 일에 종사하면 남의 의심을 받기 쉽고, 위태로운 곳에 오르면 몸을 다치기 쉬운데 어버이를 욕되게 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벗과 더불어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다."²¹⁾라고 하였다. 항상 자기의 몸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목숨까지도 부모를 생각하여 쉽게 버리지 말아야 함을 충

18) 김익수(1983), 「孝經大義」, 수덕문화사, pp.218~23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효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 내용 또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김익수가 「효경대의」에서 효의 실천 방법을 (1) 保身하는 孝道, (2) 恭敬하는 孝道, (3) 順從하는 孝道, (4) 侍奉하는 孝道, (5) 養志하는 孝道, (6) 奉養하는 孝道, (7) 諫言하는 孝道, (8) 奉祀하는 孝道, (9) 揚親하는 孝道의 9가지 요소로 분류한 것을 근거로 하여 차례대로 고찰하였으며 그 설명 또한 「효경대의」의 부록을 요약하였다.

19) 황병국 역(1990), 앞의 책, p.31.

開宗明義第：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20) 이기석·한백우 역(1988), 「論語」, 홍신문화사, p.26.

爲政：孟武伯 問孝，子曰，父母 唯其疾之憂.

21) 「禮記」, 曲禮上：孝子不服闔 不登危 懼辱親也 父母在 不許友以死

고한 것이다. 근래에 조그만 일에도 목숨을 쉽게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다.

울곡도 말하기를,

“천하의 모든 물건은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준 것이다. 만일에 남에게서 재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재물의 많고 적은 것이나 그 재물의 소중한 하잘 것 없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다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나에게 이 몸을 주셨으니 천하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준다고 하여도 이 몸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모의 막중한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찌 감히 내가 나대로 몸을 가졌다고 하여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지 않으리요.

모든 사람들이 능히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저절로 부모에게 향하는 정성이 있게 될 것이다.”²²⁾고 하였다.

한편 유가에서는 生의 법칙이 우주의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이며, 또한 인간의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한 개인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자녀에게) 계승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는 자연의 법칙이요, 우주의 법칙이며 인간 생명의 법칙으로서 한 인간이 부모 및 그 선조에 대하여 반드시 하여야 할 가장 큰 책임으로서 이를 일컬어 ‘효’라 한다.²³⁾

이상을 통하여 볼 때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이 자기 몸이다. 이 소중한 몸을 준 사람이 자기 부모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를 위하여 정성을 다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효의 시작인 것이다. 자기 신체를 온전히 지켜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물론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2) 恭敬

웃어른을 공손히 섬기는 것 또는 삼가 예를 표시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효는 정신적인 면에 진심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22) 김성원 역(1994), 「擊蒙要訣」, 명문당, p.63.

事親章: 天下之物, 莫貴於吾身, 乃父母之所遺也, 今有遺人以財物者則隨其物之多少輕重而感恩之意, 爲之深淺焉, 父母, 遺我以身, 而舉天下之物, 無以易此身矣, 父母之恩, 爲如何哉, 豈敢自有其身, 以不盡孝於父母乎, 人能恒存此心, 則自有向親之誠矣.

23) 임수무(1983), “효의 철학적 근거”, 『논문집』, 국민윤리연구회(제16집), p. 4.

맹자는 “도는 가까운 데 있는데 먼데서 구한다. 도를 실천하는 것은 쉬운데 어려운 것에서 찾으려고 한다. 사람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천하는 태평하게 될 것이다.”²⁴⁾라고 하였으며,

「孝經」에 공자께서 증자에게 대답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에서 받은 만물의 성품 중에서는 사람이 가장 귀하고, 사람의 행실에 있어서는 효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효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하늘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²⁵⁾고 하였다. 사람이 하늘과 땅의 성품을 받은 것은 인·의·예·지·신의 다섯 가지 뿐인데, 이 중에서 오로지 仁만 가지고 말한 것은, 이 仁이라는 것이 사람의 온전한 덕이 되고, 그 나머진 의·예·지·신은 모두 그 仁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이란 것은 사랑을 주장으로 삼고, 그 사랑이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²⁶⁾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德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효도라고 한다면, 제아무리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효 이상의 덕행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효도를 하는 내용과 방법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효도는 공경이다. 자기의 어버이야말로 아주 존엄한 존재로 자식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개 어머니에게는 사랑으로 공경을 하고 아버지에게는 근엄하게 공경을 하는 것이다.

공자는 공경하는 효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子遊²⁷⁾가 효에 대해서 묻자, “지금의 효라는 것은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개와 말 같은 짐승까지도 다 먹여 기르고 있으니, 공경하지 않으면 어찌 부모와 짐승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²⁸⁾고 하였다.

요즈음은 물질적으로만 부모를 잘 모시면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올바른 효도에는 받들어 모시는 마음도 따라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없이 물질적으로만 부모를 섬기고 실상은 못 마땅하게 여긴다면 진실로 효도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갖지 않고, 그저 물질적인 봉양

24) 「孟子」, 離婁章句 上: 道在爾而求儲遠 事在易而求儲難 人人 親其親 長其長 而天下平.

25) 聖治章: 子曰 天地之性 人 爲貴 人之行 莫大於孝 孝 莫大於嚴父 嚴父 莫大於配天

26) 황병국 역(1990), 앞의 책, p. 85.

27) 공자의 제자.

28) 「論語」, 爲政篇: 子游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만으로 효를 다한 것으로 알지 않도록 분명하게 한계를 지어서 공자는 그의 제자인 子遊에게 효의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율곡도 공자와 같이 공경하는 효에 대하여 그의 저서 「擊蒙要訣」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개의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보다 지나치게 되기 쉽다. 때문에 낡은 습관을 철저히 씻어 버리고 그 존경함을 극진하게 하여 부모가 계시거나 누워 계신 곳에 자식이 앉아 있거나 눕거나 하지 말 것이며, 손님을 맞이한 곳에서 자식이 사사로운 손님을 맞이하여 드리지 말며, 부모가 말을 타고 내리는 곳에서 자식이 감히 말을 타고 내려서는 안 된다.”²⁹⁾고 하였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자식은 언제나 부모를 공경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모 앞에서 드러누워 있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버릇없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예의를 지켜 공경함이 지극하여야 한다. 물론 부모 자식 사이에는 애정이 흐르기 마련이지만 이로 인하여 부모에게 예의 바른 공경을 하지 못한다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順從

웃어른에게 순순히 따르는 것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함에 있어서 효순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효순’이라고 하는 것은 어버이에게 효성을 가지고 잘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禮記」에 보면,

“효자로서 부모를 깊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和順하는 氣運이 있는 者라면 반드시 즐거워하는 얼굴빛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빛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순하고 부드러운 얼굴이 될 것이다.

효자가 부모를 모시는 마음은 마치 소중한 玉을 붙잡고 있는 것 같고, 가득 찬 그릇을 받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정성스럽고 조심성 있게 하여 이겨 내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당장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듯이 겁을 내고 있는 모양을 한다. 엄숙한 위엄을 보여서 너무 의젓하게 하여 남이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만들어 부모에게 섬기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는 법이 아니다.”³⁰⁾고 하였다.

29) 「擊蒙要訣」, 事親章：人家父子間 多是愛逾於敬 必須痛洗舊習 極其尊敬 父母所座臥處 子不敢座臥 所接客處 子不敢接私客 上下馬處 子不敢上下馬可也.

30) 「禮記」, 祭義：孝子之有深愛者必有和氣 有和氣者必有愉色 有愉色者必有婉容 孝子如執 玉如奉盈 洞洞屬屬然如弗勝如將失之 嚴威儼格非所以事親也.

진심으로 부모를 愛敬으로 대하는 효자라고 하면 和順하는 모습과 즐거운 기색으로 부모를 대하여야 하는 것이다.

모든 일을 조심조심하는 태도와 어리석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완숙한 경지에 이른 것처럼 너무 의젓하고 위엄 있고,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효자의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그저 어린 소년처럼 천진난만하고 未完熟한 언동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아가서는 웃사람을 공경하며 행동을 삼가고 남에게 믿음을 주며, 널리 여러 사람과 사귀어 특히 어진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도 남음이 있으면 글을 배워라.”³¹⁾고 하였다.

누구나 사람의 자식이라면 우선 집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밖에 나와서는 모든 일을 신중히 고려해서 남에게 신용을 잃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널리 사랑하되 특히 어진 사람을 사귀라고 했다. 이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으면 학문을 익히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공자의 인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공자는 정신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올바르게 정당한 실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모든 인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낳아 기른 부모의 은덕을 알고, 이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사람된 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상도이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을 두고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그 효의 정신을 남의 부모, 즉 어른이나 윗사람에게까지도 옮겨 남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것 역시 자연의 도리요, 천리이다. 이것이 바로 순덕이요, 순리이며 이렇게 하는 사람을 공자는 悖德者라고 하였고, 이에 반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은 悖禮者라고 하여 경계하였다.³²⁾

이것은 당연한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공자가 말한 정치는 우선 인간이 근본을 알고, 부모에게 孝順하는 것으로부터 형제끼리 우애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 모든 일의 기본이 된다고 하였다.

31) 「論語」, 學而篇: 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32) 황병국 역(1990), 앞의 책, p. 95.

孝優劣章: 子曰 不愛其親 而愛他人者, 謂之悖德, 不敬其親 而敬其親 而敬他人者 謂之悖禮.

4) 侍奉

부모를 가까이에서 잘 모시는 일을 ‘시봉하는 효도’라고 한다. 아버지가 늙고 또한 병들었을 때 효자가 해야 할 일을 「禮記」에서 보면,

“人子로서 아버지가 늙었을 때 명심해야 할 일은, 외출한 후 목적지를 바꾸지 않고, 돌아오는 시각은 그 정한 시각을 지나선 안 된다. 왜냐하면 노인은 근심 걱정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에는 치료에 관해 수단을 다하여 하루라도 속히 쾌유할 것을 바라야 한다. 그러므로 우수(憂愁)의 빛이 나타나 용모가 언짢은 것이다.”³³⁾라고 하였으며,

“무릇 남의 자식이 되어 부모를 섬기는 예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여 드려야 하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 드리며, 밤에는 잠자리를 펴서 편안하게 쉬게 해 드리고, 새벽에는 안부를 살펴야 한다. 밖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나아간다고 여쭙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부모를 뵙고 인사를 드리되, 그 안부를 눈여겨본다. 또 상업에 있어 함부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며, 평상시의 말에 자신을 늙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³⁴⁾라고 하였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대에 있어서도 부모가 생존하였다면 밖에 나아갈 때 낮을 보이고 “다녀오겠습니다”하고 돌아와서는 “다녀왔습니다”하고 부모 앞에 얼굴을 보이는 것은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일이 무슨 효가 되겠느냐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를 소외시키는 것처럼 서운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더욱이 부모에게 자식마저도 무기력하다고 하여 소외하고 무관심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외출을 하고 멀리 놀러갈 때는 처소를 알려야 함도 당연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공자도 “부모가 살아 계시거든 멀리 나가서 놀지 말며, 부득이 먼 곳을 가게 되면 가는 곳과 방향을 알려야 한다.”³⁵⁾고 하였다.

治隱 吉再도 부모에 대한 ‘시봉의 효’를 처자에게 대신 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생존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孝日을 친히 부모를 모시겠다는 결심에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현들은 부모 모시는

33) 권오돈 역(1987), 「예기」, 홍신문화사, p. 304.

「禮記(下)」, 玉藻：親老出不易方 復不過時 親癯色容不盛 此孝子之疏節也.

34) 「禮記(上)」, 曲禮上：凡爲人子之禮 冬溫而夏清 昏定而晨省 出必告 反必面 所遊必有常 所習必有業 恒 言不稱老.

35) 「論語」, 里仁篇：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

孝日을 아끼는 것을三公³⁶⁾을 하는 것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³⁷⁾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부모를 섬김을 지루하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멀리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여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버이를 섬김을 너무 길다라고 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자식된 사람은 모름지기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오히려 미치지 못함을 두려워함이 옳다.”³⁸⁾라 하였고,

“부모의 연세는 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오래 사시는 것을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연로하신 것을 두려워해야 하느니라.”³⁹⁾하였다. 즉 부모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한편으로는 오래 사시니 기뻐해야 할 것이며, 또 일면으로는 늙어 돌아 가실까 걱정을 하여 두려워하는 것이니 항상 자식은 부모의 신상을 염려하고 곁에서 변화를 살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식된 자는 언제나 부모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활을 살피 드리고 모든 일을 상의 드려 의견을 존중하여 소외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가는 것이 곧 효를 하는 길이다. 이런 말은 인간의 개인적 예법 정신과 관계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윤리나 국가의 질서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5) 養志



부모의 소망과 유지를 잘 지켜 나아가는 것으로 효를 하는 것을 ‘양지하는 효도’라고 한다.⁴⁰⁾ 대개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부모가 생존하였을 때만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후에도 생전과 다름없이 효는 계속되는 것이다. 즉 살아 생전의 덕을 기억하고 그 뜻을 지켜 나아가는 생활태도가 중요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이 도리인 것이다. 이렇게 하는 효도야말로 진정한 효가 되는 것이다.

‘양지하는 효’는 생전의 부모의 소망과 덕행을 기억하고 그 뜻을 잊지 않고 부모가 평소에 의도하던 바나 유지를 생활을 통하여 실천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36) 중국의 벼슬 이름, 천자를 보필하는 벼슬. 儒家의 經典에 의해 太師·太傅·太保를三公으로 하는 설(今文說)과 太尉(太保)·司徒·司空을三公으로 하는 설(古文說)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右議政·左議政·領議政을 말하기도 한다.

37) 김익수(1983), 앞의 책, p. 225.

38) 『擊蒙要訣』, 事親章 : 日月 如流 事親 不可久也 故 爲子者 須盡誠竭力 如恐不及可也.

39) 『論語』, 里仁篇 : 父母之年, 不可不知也, 一則以喜, 一則以懼.

40) 김익수(1983), 앞의 책, p. 226.

효도의 상은 ‘양지의 효’와 ‘공경의 효’이며, 그 下는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효’이다. 물질적인 봉양은 동물의 세계에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적어도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하면 생전의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사후에는 부모의 뜻을 이어 받고 덕행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공자는 말하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은 아버지의 뜻을 잘 살펴 볼 것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행한 바를 볼 것이니 3년 동안은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말아야 가히 효자라고 할 수 있다.”⁴¹⁾고 하였다.

이 말에는 좀 지나친 점이 없지 않으나 우리는 이 말을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갓 옛 시대의 유학에 치우친 형식적인 말이라고 가볍게 보아 넘길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게 된 공자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옛 조상의 일을 생각하고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아버지가 생전에 하던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양지의 효’에서 그 자식이 평시에 근실하고 信實性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효자라고 할 수 없다. 가령 아버지가 행한 도가 만고에 언지 못할 「道」라고 하면 자기 평생동안 고치지 말고 지켜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3년만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지켜 나아가면서 아버지가 행하던 일을 참고로 하고 숙고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또한 선친에 대한 예가 되는 것이다. 물론 3년 동안은 고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고쳐야 할 일도 있고,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행할 것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덕행을 찾아 이어 나아가는 것이 ‘양지하는 효’가 되는 것이다.

6) 奉養

사전의 의미로는 부모나 조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것으로 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으로 받드는 효도(養口體)요, 둘째는 뜻을 받드는 효도(養志)이다. ‘양구체의 효도’는 부모를 음식 등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드리는 효도이며, ‘양지의 효도’는 부모를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받드는 효도다. 위의 말을 통하여 볼 때 봉양하는 도리를 다 함은 물론이요, 음식을 잘 대접하여 부모의 口腹을 기르고, 잠자리와 거처를 편안하게 보살피서 부모의 몸 건강을 돕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41) 「論語」, 學而篇 : 父在 觀其志 父沒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

‘양지’는 부모를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만드는 효도다.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려야 하고 부모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마땅히 선행되어야 한다.

부모의 뜻을 기르는 것으로 효 중에서 가장 중시되는 내용 중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부모의 口腹과 신체를 잘 봉양하는 문제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과 뜻을 받드는 일들을 겸하게 돼야 비로소 자식으로서 봉양의 도리를 다 한다고 할만하다. ‘양구체의 효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양지’가 한층 높은 효도라는 뜻이 된다. 윤리에는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면에 더 높은 가치를 둔다.⁴²⁾

율곡은 ‘奉養’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 부모가 길러준 은혜를 입고서도 자기 힘으로 그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다. 만일에 이렇게 세월만 보내다 보면, 끝끝내 정성껏 부모를 봉양할 때가 없을 것이다. 반드시 집안 일을 맡아 스스로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한 뒤에야 자식된 도리를 바로 닦는 것이다. 만약에 부모가 굳이 듣지 않는다면 비록 집안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뒤를 살펴서 도와드려 부모에게 잡수실 것을 갖추어 극진히 하며 구미에 맞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 만일에 생각마다 부모 봉양에 뜻이 있다고 하면 산해진미라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⁴³⁾하였고,

“부모가 병환이 나면, 마음속으로 조심하며, 얼굴빛을 변하여 다른 일들을 모두 져쳐두고, 오직 의원에게 묻고, 약을 지어다가 쓰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 이렇게 하여 병환이 쾌유되면 그 전으로 돌아가 본래 하고 있던 다른 일을 보기 시작해야 한다.”⁴⁴⁾고 하였다.

이상을 통하여 볼 때 부모의 은혜를 진실로 잊지 않는다면 부모의 구미에 맞는 좋은 음식이나 산해진미라도 노력만 하면 구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식된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정성껏 효심을 발휘하여 봉양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며, 부모가 질환이 생기면 다른 일을 뒤로 미루어 두었다가 최우선으로 의원을 불러 병을 보이고 간호를 하여 신속히 완쾌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마음이 편하도록 모셔서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기하도록 하여 완쾌한 후에 비로소 자기가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자식된 사람의 도리인 것이다.

42) 김익수(1983), 앞의 책, p. 228.

43) 「擊蒙要訣」, 事親章: 今人, 多是被養於父母, 不能以己力, 養其父母, 若此庵過日月, 則終無忠養之時也, 必須躬幹家事, 自備甘旨然後, 子職乃修, 若父母堅不聽從, 則雖不能幹家, 亦當周施輔助, 而盡力得甘旨之具, 以通親口, 可也, 若心心念念, 在於養親, 則珍味, 亦必可得矣.

44) 「擊蒙要訣」, 事親章: 父母有病 心憂色沮 拾置他事 只以問醫 劑藥 爲務疾止復初.

맹자에게 불효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물었을 때

“세속에서 소위 불효자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가 있다. 사지(四肢)를 게을리하여 그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이 불효의 첫째요, 노름이나 술을 좋아하여 부모에게 봉양하지 않는 것이 불효의 둘째요, 재화를 좋아하며 처자를 돌보면서도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불효의 셋째요, 이목(耳目)의 욕망만을 따르느라고 부모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 불효의 넷째며, 용맹을 좋아하며 싸우고 성내기를 잘하여 부모에게 위태로움을 주는 것이 다섯째 불효이다.”⁴⁵⁾라고 대답하였다.

인간이란 역사적 존재이고 효는 그에 대한 자각이다. 사람은 젊어서 어버이에게 효도하지만 늙어서는 자식에게 효도를 받게 된다. 효는 주고받는 윤리인 것이다. 효의 윤리아말로 자기가 베푸는 만큼 자기도 받게 된다. 자기가 조상에게 불효를 저질렀다면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은연중 익힌 자기의 자식이 장래 또한 자기에게 불효로 되돌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개가 부모 생존시에는 효를 다하지 않고 죽은 후에야 비로소 생전에 봉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예가 많다. 그러므로 자식된 자는 마땅히 부모에게 봉양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

7) 諫言



어른이나 임금에게 잘못을 고치도록 말하는 것으로서 부모가 불의·불합리한 일을 할 때는 충언으로 간하여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다.

「孟子」 告子章句에서 부모의 과실에 대해,

“부모의 과실이 큰데도 원망하지 않으면 이것은 부모와 더욱 멀어지는 것이다. 부모의 허물이 작은데도 부모를 원망한다면 이것은 부모에게 사소한 일에도 성내는 것이다. 더욱 멀어지는 것은 불효요, 자식이 부모에게 사소한 일에도 성내는 것도 또한 불효이다.”⁴⁶⁾라고 하였다.

그리고, 증자가 공자에게 여쭙기를,

“자애와 공경 그리고 부모를 편안하게 하여 드리고 양명에 힘써야 함은 삼(증자)은 이미 익히 들어왔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의 명령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 시

45) 「孟子」, 離婁章句 下: 世俗所謂不孝子 五 惰其四肢 不顧父母之養 一不孝也 博奕好飲酒 不顧父母之養 二不孝也 好貨財 私妻子 不顧父母之養 三不孝也 從耳目之欲 以爲父母戮 四不孝也 好勇鬪狠 以爲父母 五不孝也..

46) 「孟子」, 告子章句 下: 親之過 大以不怨 是 愈疏也 親之過 小而怨 是 不可磯也 愈疏不孝也 不可磯 亦不孝也.

비를 묻지 않고, 부모의 명령 그대로만 따르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⁴⁷⁾ 이에 공자는 답변하기를,

“삼아, 대저 不義한 일이나 불합리한 일을 그냥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효도를 해치는 것으로써 도리 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옛날에는 천자에게는三公이 전후좌우에서 모시고 있었고, 또한 주위를 보필하고 있는 신하가 무려 七臣이나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들은 만일에 천자께서 과실이 있게 되면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諫爭하여 그러한 과오가 없도록 사전에 막아서 도움을 주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임금의 무도한 행동을 하여 천하를 잃고, 또한 그 몸을 망치지 않고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후에게도 마찬가지로 5인의 爭臣이 있어서 제후께서 무도한 일을 저지른다고 하여도 이를 적극적으로 諫하여 구하여 주었으므로 그 나라를 잃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大夫에게도 家宰와 같은 보좌역을 하는 사람이 3인이나 있어서 주인이 무도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諫하여 선도하였으므로 그 집을 망치고 잃는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선비 계급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옳게 말하여 忠言을 하여 주는 자가 있어서 도의로써 서로 切磋하는 爭友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상호간에 충언하고 선도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과실을 범하는 일이 없이 항상 그 명령이 그 몸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보통 사람에게 이르러서까지도 그 아버지에게 不義無道한 일이 있을 때는 자식된 자는 마땅히 孝情을 다하여 화기 있고, 온화하게 諫言을 하면 어버이도 자각을 하여 불의에 무모한 행동을 하여 자신이 궁지에 몰리는 일을 모면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자가 어버이를 대하고 공경하는 태도가 될 것이며 자식된 도리가 되는 것이다.”⁴⁸⁾

아버지가 그르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순종한다면 이것은 아버지를 불의로 몰아 넣어서 효도에 역행하는 것이니,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증자가 “부모가 무엇이든 시키면 일의 좋고 나쁜 것은 물어볼 필요 없이 그 말대로 따라 하면 효도가 됩니까?”하고 물으니, 공자는 이 말을 받아 더 넓혀서 말

47) 「孝經」, 諫爭章: 曾子曰, 若夫慈愛龔敬, 安親揚名, 參聞命矣, 敢問, 子從父之命, 可謂孝乎.

48) 「孝經」, 諫爭章: 子曰 參, 是何言與, 是何言與, 言之不通邪. 昔者 天子有爭臣七人 雖亡道 不失天下. 諸侯 有爭臣五人 雖亡道 不失其國, 大夫有爭臣三人 雖亡道 不失其家, 士有爭友 則身不離於令命, 父有爭子 則身不陷於不諫. 故 當不諫 則子不可以不爭於父, 臣不可以不爭於君. 故 當不諫 則爭之. 從父之命 又安得爲孝乎.

한 것이다.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그 아버지의 잘못을 보거든 그대로 순종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충고를 서슴없이 해야 한다.

그러므로 보통 가정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서인들까지도 자기 부모가 불의·부당한 일을 할 때는 진심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화기 있는 얼굴과 온화한 말씨로 간언을 하여 바른 방향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효자의 도리인 것이다.

또한 「禮記」·〈曲禮〉에 의하면,

“아들이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과실을 3번 고치라고 거듭하여 간하여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부르짖어 울면서라도 그대로 좇는다.”⁴⁹⁾고 하였다.

이상을 통하여 볼 때 부모의 명을 따르느냐, 불의·부당한 일을 그대로 좇느냐 하는 문제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부자의 관계는 天倫이 있으므로 아버지의 뜻을 율부짖으면서라도 아버지를 따라야 자식의 도리요, 효하는 길임은 부자의 관계 즉, 父子有親의 윤리를 가장 강력히 강조한 내용이다.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모의 잘못을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은근히 간하여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과실을 범하게 마련이다. 부모도 사람인 만큼 과실을 범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아랫사람이나 자식들은 이러한 과실을 보더라도 그것을 빙자해서 부모님을 난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말로 은근히 이해를 시켜야 한다. 공자의 이 말은 단지 부모님을 섬기는 데에만 필요한 말이 아니라, 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대인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8) 奉祀

효는 수많은 조상에 대한 윤리이다. 인간이란 누구나 수많은 조상의 은혜에 의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제사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추모의 의식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생존하였을 때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효는 부모의 사후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이 ‘봉사하는 효’는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을 말하는 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 차례와 제례가 있다. 제례를 지낼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효자가 제사가 행함에 있어 그 정성을 다하여 삼가고, 그 충신(忠信)을 다하여 신뢰하며, 그 공경을 공손히 모시며, 그 예의를 다하여 허물이 없도록 한다. 나아

49) 子之事親也 三諫而不聽則 號立而隨之.

가고 물러가는데 있어 반드시 공경하여 소홀히 하지 않기를 몸소 부모의 명을 듣고서 행하듯 하는 것이다.”⁵⁰⁾라 하였고,

“효자가 부모상을 당하면, 곡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며, 사람 앞에서 예를 함부로 하지 않으며, 말을 번잡스럽게 하지 않으며, 좋은 옷을 입게 되면 몸이 편안치 않으며, 음악 소리를 들어도 즐거워하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에 달지 않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것은 슬퍼하고 서러워하는 정에서 우러나는 것이다.”⁵¹⁾고 하였다.

군자에게는 三樂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머리가 부모가 생존하여 있는 것이다. 부모의 생존이야말로 그 자식이 이보다 더 즐거움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돌연히 돌아가신다면 골육이 어긋난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효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애통한 나머지 곡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예도를 나타내지 못하여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슬픔이 복받치기 때문이며, 아름다운 옷도 몸에 편하지 않으며 화려한 음악도 즐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그 맛을 모르게 된다. 그러므로 효자는 갈대자리에서 잠을 자며, 흙덩이를 베고, 삼베옷을 입고, 미음을 먹고, 목숨을 지탱하는 것도 오히려 과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공자는 또 말하기를,

“살아 있을 때에 섬기는 데는 사랑과 공경으로 하고, 죽어서 섬기는 데는 슬픔과 서러움으로 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백성의 근본을 다 하는 것이며, 죽고 사는 의리가 갖추어지는 것이니 이로써 효자의 부모 섬기는 도리를 다 했다 할 것이다.”⁵²⁾고 하였다.

부모가 생존시에는 애경으로 부모를 섬기고, 사후에는 슬픔과 서러움으로 대하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효를 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 한다면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공자는 말하였다.

사람이란 어린이는 어른이 아니면 자라지 못하고, 늙은이는 젊은이가 아니면 봉양 받을 수 없으며,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면 장사 지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그

50) 「禮記」, 祭義 : 孝子之祭也 盡其慤而慤焉 盡其信而信焉 盡其敬而敬焉 盡其禮而不過失焉 進退必敬 如 親聽命則或使之也.

51) 「孝經」, 喪親章 : 子曰 孝子之喪親也 哭不依 禮無容 言不文 服美不安 聞樂不樂 食旨不甘 此哀戚之情也.

52) 生事愛敬 死事哀戚 生民之本 盡矣 死生之義 備矣. 孝子之事親 終矣.

사랑의 가장 두터운 사이가 부모와 자식 사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논어」·〈팔일편〉에 보면, 공자는

“조상의 제사 때에는 마치 조상이 와서 계신 듯이 하고, 신에게 제사지내되 신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또 말하기를,

“내 자신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⁵³⁾고 하였다. 이 구절은 제사 지내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인데 모든 예의 범절에 있어서 형식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공자는 자기 조상의 제사에 임하여 친히 참가하지 않으면 차라리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고 하였다. 즉 자기 조상을 위한 제사에는 정성을 다 하여 꼭 참석하여야 한다는 경구일 것이다.

울곡도 ‘봉사의 효’를 중시하여 상례와 제례를 극진히 할 것을 강조하여 모든 예는 「주문공의 가례」에 따르도록 하였다. 뿐 아니라 상례와 제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격몽요결」이란 책자를 통하여 널리 보급되어 당시 사람들에게 효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과서가 되었던 것이다.

9) 揚親



‘입신양명의 효’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학문과 도를 닦고, 사회에 나아가서 바른 천도와 진리를 따라서 행동을 하고, 나아가서는 이왕이면 입신출세하여 자기 자신의 명예는 물론이요, 가문과 조상까지도 빛내게 하는 것이 자식된 자로서 보람있게 효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양명영친(揚名榮親)’하는 효도이다.

「효경」·〈개종명의장〉에 보면,

“효란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고 孝養을 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중간 지점의 봉사로 보고 효와 충을 다 하게 되면, 끝으로 立身行道하여 올바른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끝을 삼았다.”⁵⁴⁾고 하였으며,

대아에게 말하기를,

“너의 조상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덕을 수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공자는 “효도는 모든 도덕의 근본이요, 또한 교육의 근원이다”라고 하여 그 개념과 큰 뜻을 말하였다.

53) 祭如在 祭神如神在. 子曰 吾不如祭 如不祭.

54) 夫孝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

공자는 효도의 시작을 자기 몸을 건전하게 보존, 유지하는 데 두었다. 몸이 건강하여야 비로소 덕을 행하게 된다. 덕의 근본은 효이다. 그러므로 몸이 건강하여야 효도를 할 수 있다. 덕은 정신생활이다. 덕은 행위이고, 그 덕의 행동은 효이다.

효도는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고, 모셔서 봉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이바지하여 세상에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후세에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 나아가서는 조상까지도 유명하여 진다. 이것이 효의 완성이다.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몸을 삼가고 행실을 바르게 하여야 하며, 정의와 인도를 행함에 있어서 내 몸을 욕되게 하지 말며 부모의 마음을 손상치 말아야 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용기를 내어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모에게 욕보이게 하는 것은 자식이 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체통을 잃고 위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이 점에 대하여 퇴계의 어머니도 자식에게 가훈을 통하여 말하기를,

“글공부나 한다고 글이나 잘 외우고 짓는 것만으로 일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는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행실을 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⁵⁵⁾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글공부나 잘하여서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출세한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자식이라면 行道를 잘 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국가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이바지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며, 법을 지키고 의무를 다 하여 후세까지 이름(名聲, 名譽)을 날릴 것을 생각하여 절도 있고 끈기 있게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꾸준히 노력하여 입신출세를 한다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기 가문을 빛내고, 또한 조상의 이름을 빛내게 된다.

인간은 항시 근본을 생각하여야 하는 만큼 함부로 언행을 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자기 가문, 그리고 자기 조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거수 일투족이라도 신중히 언행을 하여야 함은 물론 자신과 조상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도를 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자식으로서 참다운 인간으로서 당연히 취하여야 할 정도(正道)인 것이다.

55) 김익수(1983), 앞의 책, p. 237.

3. 현행 초등 교육 과정의 효 덕목

우리 나라의 초등 교육에서는 해방 이후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전통적인 윤리 규범으로 효 교육을 중시하여 왔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전통적인 효의 내용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이론에 근거하여 현대 한국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전통적 효의 현대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 과정에 나타난 덕목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기로 한다.

교육목표에 따른 지도내용으로서의 덕목⁵⁶⁾은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나 그 내용은 대체로 < 표Ⅱ-1,2,3,4 >와 같다.

<표Ⅱ - 1> 2, 3차 교육과정의 덕목

구 분 \ 차	2 차 교 육 과 정	3 차 교 육 과 정
예 절 생 활	올바른 자세, 인사 예절, 어른 공경, 언어와 행동, 용의 단정, 식사 예절, 국민 의례, 집회 예절, 공동 시설, 교통 질서, 방문 예절, 혼상제례, 종교 의식, 외국인 예절	자세·용의, 인사·언행, 일반 예절, 집회 의식
개 인 생 활	정직과 양심, 성실과 노력, 과욕과 분수, 검약과 청렴, 명랑·활달, 정돈과 규율, 용기와 신념, 자만심과 억제, 겸손과 아량, 환난 극복, 사례와 창의성, 초지 일관, 신중과 침착, 개성 신장, 직업과 근로, 판단력과 책임	건강·안전, 자주·자율, 정직·성실, 정리·정돈, 검소·예절, 관용·자비, 용기·신념, 인내·불굴, 근면·노력, 동식물 애호, 창의·진취, 시간 존중, 사려·반성, 명랑·쾌활, 개성 신장, 심미
사 회 생 활	교우 관계, 양보, 이해와 존중, 형우제공(兄友 弟恭), 은혜 감사, 친절 봉사, 친근·협력, 공중 도덕, 이웃 돕기, 협동 봉사, 규칙 준수, 우정·의리, 정당한 경쟁	인권 존중, 경애·감은, 우정·신의, 공익·공덕심, 가정애, 협동·상조, 친절·동정, 애교·애향, 책임·의무, 규율·준법, 공명正大
국 가 생 활	국기 예절, 국가애·민족애, 보훈 봉사, 국가 발전 협력	국가 의식 고취, 국민 긍지·민족 자각, 선열과 국군에 감사, 국가 발전 협조, 미풍 양속의 계승·발전, 인류애와 세계 평화

56)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도덕)」, 국정교과서주식회사, pp.12-22 요약.

<표Ⅱ - 2> 4차 교육과정의 덕목

구 분	관 련 덕 목
개인의 발전	품위, 성실, 절제, 명량, 자주, 창조, 사려
명량한 사회	예절, 가정애, 경애, 관용, 공익, 책임, 협동, 정의
나라의 발전	국민 정신, 국가 발전, 인류 공영

<표Ⅱ - 3> 5, 6차 교육과정의 덕목

구 분 \ 차	5차 교 육 과 정	6차 교 육 과 정
개인 생활	명량, 성실, 생명 존중, 자주, 사려, 절제, 실천 의지	생명 존중, 자주, 성실, 절제, 실천 의지
가정·이웃·학교 생활	예절, 가정애, 관용, 경애, 애교 애향	가정 예절, 학교 예절, 향토애, 관용, 경애
사회 생활	신의, 준법, 타인 존중, 협동, 공익, 정의	공공 질서, 협동, 공익, 공정, 민주적 절차
국가 민족 생활	국가애, 국가 발전 협력, 민족애, 국제 우호	국가애, 민족애, 국제 우호, 인류애



<표Ⅱ - 4>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덕목(57)

구 분	주 요 가 치 · 덕 목
개인 생활	생명 존중, 성실, 정직, 자주, 절제
가정·이웃·학교 생활	경애, 효도, 예절, 협동, 애교·애향
사회 생활	준법, 타인 배려, 환경 보호, 정의, 공동체 의식
국가 민족 생활	국가애, 민족애, 인류애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관련 덕목과 전통적인 효 요소를 비교하여 보면 <표Ⅱ - 5>와 같다. 여기에서 2편의 선행연구(58)를 참고로 하였다. 물론 초등학교 교육과

57)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국어,도덕,사회」, 서울특별시인쇄공업협동조합, p. 194.

58) 최순호(1996), "초등학교 학생의 효의식에 관한 연구(인천시내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석봉(1994), "전통적 효요소에 의한 효의식 조사 연구(대구광역시 초등학교 효의식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의 관련 덕목들은 현대 사회의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효 요소와 그 표현 등에서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나 중복되기도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전통적인 효 요소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의 질문 내용도 이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표Ⅱ - 5> 전통적 효의 실천 요소와 현대적 효의 비교

전통적 효		현행 교육과정의 효	
효의 요소	내용	효의 요소	실천 덕목
보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보존하는 효	건강의 중요성	감은정신, 인간존엄, 생명존중, 건강안전, 규칙준수, 자주자율, 용의단정
공경	부모가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성을 보이는 효	부모 존경과 가족애	경애감은, 동식물 애호, 진심진실
순종	부모를 애경으로 따르는 효	가정의 질서와 조화	책임의무, 검소 절제, 친절
시봉	부모를 가까이에서 잘 받들어 모시는 효	봉사와 인간 존중	시간 존중, 부모 이해, 인사 언행, 봉사정신
양지	부모의 의지를 생활을 통하여 실천하여 나가는 효	부모 존경의식	가정애, 인류애, 화목, 예절
봉양	부모를 정신적으로, 진심으로 받드는 효	부모 은혜 보답	미풍양속, 친절, 가정애, 은혜 보답, 안락
간언	부모가 불의, 불합리한 일을 하실 때 충고를 하는 효	정의와 진실	충고, 긍지, 공명정대, 사려반성, 정직 성실
봉사	돌아가신 조상에게 예를 받드는 효	가정의 전통과 사랑	조상숭배, 민족애, 민족자각, 전통계승, 자식사랑
양친	사회에 나아가 자신의 명예와 가문을 빛나게 하는 효	명예 존중과 성실	부모의 명예, 조상의 명예, 정직성실, 창의진취, 용기신념, 개성신장, 근면노력, 인내불굴

Ⅲ.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의 표집

본 연구는 1999. 2월 제주도 초등학교 중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의 17개 학교를 무선 표집하여 6학년 589명(남 315명, 여 274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하였다.

각 초등학교에 배부된 질문지 배부 현황과 회수 현황은 <표 Ⅲ-1> 과 같다.

<표 Ⅲ-1> 조사 대상 집단의 학생 수

구분 지역	배 부 학 교 수	질 문 지 응 답 학 생 수
제 주 시	8	273
서귀포시·남제주군	5	190
북 제 주 군	4	126
계	17	589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연구의 필요성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 문헌 및 자료의 분석에 입각하여 학생의 실생활에 맞는 효의 요소를 9개 종속변인으로 나누어 그에 맞는 질문지를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제작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 학교의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회 실시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내용타당성을 높였다.

효 의식 측정을 위하여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의 의식 변인 체계에 따른 구성 내용 및 문항 수는 <표 Ⅲ- 2> 와 같다.

〈표 III- 2〉 질문지의 구성 내용 및 문항 수

항목 번호	요 소	의식 영역	질 문 내 용	항목 수
1	보 신	행동	나는 학교에 오갈 때나 밖에 외출할 때 부모님에게 반드시 인사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1
2		정의	우리는 부모님이 자주 걱정하는 몸이 다칠 것 같은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3	공 경	행동	나는 항상 부모님께 높임말을 쓰고 있다.	1
4		정의	부모님이 남보다 훌륭하지 못하고, 나에게 잘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1
5	순 중	행동	나는 재미있는 놀이나 만화영화를 볼 때도 부모님이 심부름이나 공부를 하라고 하면 즉시 '예'하고 따른다.	1
6		정의	부모님이 정해진 결혼 상대자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나 부모님 말씀에 따라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7	시 봉	행동	나는 자주 부모님과 대화를 하며, 조그만 문제도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 조언을 받고 있다.	1
8		정의	어른이 되어서 살기가 어려워도 부모님을 무료양로원으로 보내지 않고 끝까지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1
9	양 지	행동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자주 되새기며, 항상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한다.	1
0		정의	만약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으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1	봉 양	행동	나는 부모님이 일하고 돌아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고 위로를 해 드리고 있다.	1
2		정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물건을 보면 가져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1
3	간 언	행동	나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못한 생각이 들면 그 옳지 않은 것을 말씀드린다.	1
4		정의	후에 가정을 꾸리고 살 때 자식이 나의 잘못을 얘기하면 자식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5	봉 사	정의	나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물론 돌아가신 후에도 제사를 지내거나 산소를 돌보는 등 잘 모시겠다.	1
6		정의	요즘 돌아가신 조상의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후손의 도리로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1
7	양 친	정의	나는 우리 집안과 조상의 명예를 빛나게 하는 일이라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	1
8		정의	세상(사회)에 나아가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되는 것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1
계				8

3. 응답자 변인

설문지 작성을 위한 변인은 효 의식에 관련된 변인 중에서 응답자의 변인과 설문지 작성 내용에 필요한 종속변인의 2가지로 구성하였다.

응답자 변인으로는 1. 성별, 2. 가족상황, 3. 친척의 교류 상황, 4. 가족이 믿고 있는 종교, 5. 보호자의 학력, 6. 보호자의 직업 6가지의 측정 가능한 독립변인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한 학생은 6학년 아동만으로 구분하였는데, 초등학생에게는 조금 어려운 고등정신인 가치관에 관한 효 의식이기에, 그 아래의 학년은 다소 의미가 잘못 전달되기 쉬워서 6학년에 한정하기로 하였다.

4. 조사 결과 처리 방법

설문지의 응답 결과는 수집된 자료를 코드화 하여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백분율, χ^2 , df, p 를 구하기 위해 전산 처리하였다. 통계처리는 χ^2 에 의하고 먼저 각 문항마다 전체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하고, 문항의 응답 변인에 따라 의미 있는(유의 수준 0.05 미만) 것과 백분율(%)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5. 조사의 기대 효과

〈표 III-1〉, 〈표 III-2〉와 같은 설문체계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성과를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전통적인 효 요소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독립변인 중에서 효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서의 예상되는 결과에 의해 초등학교 효 교육의 기초 자료가 확보되고 따라서 현대적인 효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응답자 기초조사 결과 분석

응답자에 대한 기초조사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독립변인 6가지 항목에 걸쳐서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응답자 총수는 589명으로서 기초조사에 나타난 항목별 분포상황은 <표 III-3> 과 같다.

<표 III-3> 기초 조사 결과

변 인	변 인 구 분	인원수
1. 성 별	1. 남 자	315
	2. 여 자	274
2. 가족상황	1. 핵가족이다.	456
	2. 대가족이다.	87
	3. 아버지하고만 산다.	7
	4. 어머니하고만 산다.	21
	5. 할아버지(혹은 할머니)하고만 산다.	15
	6. 친척하고 산다.	2
	7. 혼자 또는 형제(자매)하고만 산다.	1
3. 친척 교류 상황	1. 친척이 자주 왕래한다.	453
	2. 친척이 자주 왕래하지 않는다.	136
4. 가족의 종교	1. 불 교	289
	2. 개 신 교	67
	3. 천 주 교	88
	4. 유 교	3
	5. 기타 종교	28
	6. 믿는 종교가 없다.	114
5. 보호자 학력	1. 초 등 학 교(과거: 국 민 학 교)	24
	2. 중 학 교	66
	3. 고 등 학 교	314
	4. 전문대, 대학교	158
	5. 대 학 원	27
6. 보호자 직업	1. 농·어업	119
	2. 상 업	139
	3. 공 업	39
	4. 공 무 원	82
	5. 회 사 원(월급을 받음)	86
	6. 운 수 업(기사, 차량을 이용한 일)	60
	7. 노 동(일당을 받거나, 가끔 일을 함)	57
	8. 직업이 없음.	16

<표 III-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 대상의 회수율은 100%이었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 통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6부를 제외시켜 남자 315부, 여자 274부, 총

589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77.4%, 대가족이 14.8%로 안정된 가정이 전체의 92.2%가 되었다.

친척 교류 상황은 친척이 자주 왕래하는 가정이 76.9%, 그렇지 못하는 가정이 23.1% 이었다.

다음으로 가족이 믿는 종교를 살펴보면, 불교 49.1%, 천주교 14.9%, 개신교 11.4%, 기타종교 4.8%이었으며, 종교를 가지지 않고 있는 가정도 19.4% 이었다.

보호자의 학력은 초등학교 24%, 중학교 11.2%, 고등학교 53.3%, 대학교 26.9%, 대학원 4.6%로 나타났다.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보호자가 84.6%로 나타난 것을 보면 보호자의 평균학력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호자의 직업을 보면 농·어업 20.2%, 상·공업 28.7%, 공무원 13.9%, 회사원 14.6%, 운수업 10.2%, 노동 9.7%, 직업 없음 2.7%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정의 약 90%정도는 그래도 가정을 꾸려 가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수가 5명 이내인 가족 상황에서 <친척하고 산다.>, <혼자 산다> 와 가족의 종교에서 <유교>는 백분율 분석에서도 제외시켰다.



IV. 조사의 결과 및 해석

1. 보신 의식

1) 보신에 대한 행동적인 면

보신에 대한 행동적인 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나는 학교에 오갈 때나 밖에 외출할 때 부모님에게 인사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 반응 결과는 ‘확실히 그렇다’ 44.7%와 ‘대체로 그렇다’ 50.1%로 긍정적 반응이 94.8%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3.7%와 ‘확실히 그렇지 않다’ 1.5%로 부정적 반응도 5.2%로 나타났다.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의 대부분은 부모님에게 자기의 거처를 이야기하고 다니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배경 원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통계량을 이용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 보신에 대한 행동적인 면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나는 학교에 오갈 때나 밖에 외출할 때 부모님에게 인사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589	확실히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계
		1.5	3.7	50.1	44.7	10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N (%)	χ^2	df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성별	남	315 (53.5)	8.6*	3	1.0	5.1	53.3	40.6
	여	274 (46.5)			2.2	2.2	46.4	49.3

가족	핵가족	456 (77.4)	18.5	18	1.3	3.7	51.5	43.4
	대가족	87 (14.8)			1.1	3.4	48.3	47.1
	아버지	7 (1.2)			14.3	0.0	42.9	42.9
	어머니	21 (3.6)			0.0	9.5	47.6	42.9
	조부모	15 (2.5)			6.7	0.0	26.7	66.7
	친척	2 (0.3)			0.0	0.0	50.0	50.0
	혼자	1 (0.2)			0.0	0.0	0.0	100.0
친척	왕래함	453 (76.9)	3.4	3	1.5	3.3	48.6	46.6
	왕래안함	136 (23.1)			1.5	5.1	55.1	38.2
종교	불교	289 (48.8)	8.9	15	1.4	4.2	48.1	46.1
	개신교	67 (11.4)			1.5	4.5	55.2	38.8
	천주교	88 (14.9)			0.0	2.3	52.3	45.5
	유교	3 (0.5)			0.0	0.0	33.3	66.7
	기타종교	28 (4.8)			0.0	0.0	53.6	46.4
	종교없음	114 (19.4)			3.5	4.4	50.0	42.1
학력	초등학교	24 (4.1)	13.2	15	0.0	4.2	54.2	41.7
	중학교	66 (11.2)			3.0	7.6	47.0	42.4
	고등학교	314 (53.3)			2.2	3.2	50.6	43.9
	대학(교)	158 (26.9)			0.0	3.2	52.5	44.3
	대학원	27 (4.6)			0.0	3.7	33.3	63.0
직업	농·어업	119 (20.2)	10.9	21	5.0	8.4	51.3	35.3
	상업	139 (23.6)			5.8	7.2	45.3	41.7
	공업	39 (5.1)			6.7	10.0	50.0	33.3
	공무원	82 (13.9)			9.8	8.5	43.9	37.8
	회사원	86 (14.6)			9.3	11.6	41.9	37.2
	운수업	60 (10.2)			8.3	6.7	41.7	43.3
	노동	57 (9.7)			8.8	8.8	38.6	43.9
	직업없음	16 (2.7)			18.8	6.3	43.8	31.3

* p < .05

성별에 따라 '확실히 그렇다'의 응답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9%정도 높게 반응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므로 성별에 따른 남·여간 효과에 대한 태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가족구성원에 따른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아버지하고만 사는> 학생의 14.3%가 '확실히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고 있다.

친척 교류 관계의 결과를 보면, <친척이 자주 왕래하는 가정>의 학생이 <친척이 자주 왕래하지 않는 가정>의 학생보다 긍정적인 면에 8.4%보다 높게 반응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친척끼리의 화합이 아동에게도 큰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부모 학력의 결과를 보면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

으며, 부모의 직업에 따른 결과에서 ‘확실히 그렇지 않다’의 강한 부정적 반응이 가장 높은 직업은 <부모의 직업이 없는 가정>이었다.

2) 보신에 대한 정의적인 면

보신에 대한 정의적인 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는 부모님이 자주 걱정하는 위험한 놀이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90.1%, 부정적 반응이 9.8%로 거의 전 학생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1번 문항(행동적 측면)의 부정적 반응(5.2%)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그리고 ‘확실히 그렇다’의 학생은 38.7%, ‘대체로 그렇다’의 학생은 51.4%로서 자신감 있는 학생이 수가 줄어들어 감을 알 수 있으며 효의 기초인 보신하는 효도에 대해 앞으로 꾸준한 지도가 있어야겠다.

이것을 배경 원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 보신에 대한 정의적인 면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계
우리는 부모님이 자주 걱정하는 위험한 놀이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589	2.2	7.6	51.4	38.7	10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N (%)	x ²	df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성별	남	315 (53.5)	9.0 *	3	2.2	9.8	54.0	34.0
	여	274 (46.5)			2.2	5.1	48.5	44.2
가족 구성	핵가족	456 (77.4)	32.2 *	18	2.0	8.1	51.3	38.6
	대가족	87 (14.8)			2.3	5.7	54.0	37.9
	아버지	7 (1.2)			28.6	14.3	28.6	28.6
	어머니	21 (3.6)			0.0	0.0	57.1	42.9
	조부모	15 (2.5)			0.0	13.3	53.3	33.3
	친척	2 (0.3)			0.0	0.0	0.0	100.0
	혼자	1 (0.2)			0.0	0.0	0.0	100.0

친척	왕래함	453 (76.9)	1.9	3	1.8	7.5	51.4	39.3
	왕래안함	136 (23.1)			3.7	8.1	51.5	36.8
종교	불교	289 (48.8)	13.2	15	1.4	8.3	52.6	37.7
	개신교	67 (11.4)			4.5	7.5	53.7	34.3
	천주교	88 (14.9)			1.1	8.0	51.1	39.8
	유교	3 (0.5)			0.0	33.3	33.3	33.3
	기타종교	28 (4.8)			3.6	10.7	32.1	53.6
	종교없음	114 (19.4)			3.5	4.4	52.6	39.5
학력	초등학교	24 (4.1)	7.4	15	4.2	0.0	54.2	41.7
	중학교	66 (11.2)			1.5	9.1	45.5	43.9
	고등학교	314 (53.3)			2.2	8.3	53.8	35.7
	대학(교)	158 (26.9)			1.9	7.6	49.4	41.1
	대학원	27 (4.6)			3.7	3.7	48.1	44.4
직업	농·어업	119 (20.2)	16.6	21	4.2	8.4	47.9	39.5
	상업	139 (23.6)			2.9	6.5	54.7	36.0
	공업	39 (5.1)			6.7	0.0	43.3	50.0
	공무원	82 (13.9)			1.2	9.8	56.1	32.9
	회사원	86 (14.6)			0.0	9.3	51.2	39.5
	운수업	60 (10.2)			1.7	8.3	46.7	43.3
	노동	57 (9.7)			0.0	7.0	52.6	40.4
	직업없음	16 (2.7)			0.0	6.3	56.3	37.5

* p < .05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5% 에서 유의하므로 성별에 따른 남·여간 효도에 대한 태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학생들이 행동적 측면과 마찬가지로 <남자>보다 <여자>가 10%정도 높게 반응하고 있어 <여자>가 부모님에게 걱정을 덜 끼쳐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구성원에 따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5% 에서 유의하므로 가족구성원에 따른 효도에 대한 태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정상 가정>의 경우는 전체의 반응 결과와 비슷하나 특이한 점은 결손 가정의 경우, <아버지하고만 사는 가정>의 학생은 42.8%가 부정적 반응을 하였고, <어머니하고만 사는 가정>의 학생은 부정적 반응이 없었다.

친척 교류·가족이 믿고 있는 종교·보호자의 학력·보호자의 직업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공경 의식

1) 공경에 대한 행동적인 면

공경에 대한 행동적인 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나는 부모님에게 높임 말을 쓰고 있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53.5%, 부정적 반응이 46.5%로 과반수의 학생이 높임말을 쓰고 있지 않으며 ‘확실히 실행하고 있는 학생’도 8.1%에 불과함을 알 수 있었다.

높임말을 쓰는 것만으로 학생들이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안하고를 대표할 수는 없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언어 예절부터 교육이 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학교는 물론 가정, 더 나아가 매스미디어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배경 원인에 따라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I-3>과 같다.

<표 IV-3 > 공경에 대한 행동적인 면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계
		확실히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나는 항상 부모님께 높임말을 쓰고 있다.	589	7.6	38.9	45.0	8.5	10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N (%)	x ²	df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성별	남	315 (53.5)	9.8*	3	7.0	35.2	46.3	11.4
	여	274 (46.5)			8.4	43.1	43.4	5.1
가족 구성	핵가족	456 (77.4)	36.9**	18	7.2	40.6	44.7	7.5
	대가족	87 (14.8)			3.4	37.9	47.1	11.5
	아버지	7 (1.2)			42.9	0.0	14.3	42.9
	어머니	21 (3.6)			14.3	23.8	52.4	9.5
	조부모	15 (2.5)			20.0	33.3	40.0	6.7
	친척	2 (0.3)			0.0	50.0	50.0	0.0
	혼자	1 (0.2)			0.0	0.0	100.0	0.0

친척 교류	왕래함	453 (76.9)	8.6*	3	7.3	36.0	47.5	9.3
	왕래안함	136 (23.1)			8.8	48.5	36.8	5.9
종교	불교	289 (48.8)	17.0	15	10.0	36.3	46.4	7.3
	개신교	67 (11.4)			4.5	41.8	38.8	14.9
	천주교	88 (14.9)			5.7	45.5	44.3	4.5
	유교	3 (0.5)			0.0	33.3	66.7	0.0
	기타종교	28 (4.8)			3.6	25.0	57.1	14.3
	종교없음	114 (19.4)			6.1	42.1	42.1	9.6
학 력	초등학교	24 (4.1)	9.0	15	0.0	50.0	41.7	8.3
	중학교	66 (11.2)			7.6	39.4	45.5	7.6
	고등학교	314 (53.3)			6.7	38.5	46.8	8.0
	대학(교)	158 (26.9)			10.7	39.3	40.5	9.5
	대학원	27 (4.6)			7.4	29.6	51.9	11.1
직 업	농·어업	119 (20.2)	10.9	21	5.0	35.3	51.3	8.4
	상업	139 (23.6)			5.8	41.7	45.3	7.2
	공업	39 (5.1)			6.7	33.3	50.0	10.0
	공무원	82 (13.9)			9.8	37.8	43.9	8.5
	회사원	86 (14.6)			9.3	37.2	41.9	11.6
	운수업	60 (10.2)			8.3	43.3	41.7	6.7
	노동	57 (9.7)			8.8	43.9	38.6	8.8
	직업없음	16 (2.7)			18.8	31.3	43.8	6.3

*p< .05, **p< .01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5% 에서 유의하므로 성별에 따른 남·여간 효도에 대한 태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결과를 보면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반응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반응하고 있다.

가족구성원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므로 가족 구성원에 따른 효도에 대한 태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확실히 하고 있다'의 전체 반응 결과(8.5%) 보다 높게 나타난 가정은 <대가족>11.5%, <아버지>42.9% 뿐이었다. 반면에 '확실히 그렇지 않다'의 전체 반응 결과 보다 높게 나타난 가정을 보면, <아버지>42.9%, <어머니>14.3%, <조부모>20.0% 이다.

친척 교류 관계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므로 친척 교류 관계에 따른 효도에 대한 태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보호자의 직업에서 보면 강한 부정적 반응인 '확실히 그렇지 않다'에서 전체 반응 결과(8.5%)보다 높은 가정은 <직업 없음> 18.8%, <공무원>9.8%, <회사원> 9.3%, <노동> 8.8% 순 이었다.

2) 공경에 대한 정의적인 면

공경에 대한 정의적인 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님이 남보다 훌륭하지 못하고, 나에게 잘해 주시지 않아도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확실히 그렇다’ 66.0%와 ‘대체로 그렇다’ 27.2%로 긍정적 반응이 93.2%로 나타나 부모님을 존경하는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행동적 측면의 긍정적 반응(53.5%)보다 상당히 높은 결과(93.2%)가 나왔다.

이것을 배경 원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 통계량을 이용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VI-4> 공경에 대한 정의적인 면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계
부모님이 남보다 훌륭하지 못하고, 나에게 잘해 주시지 않아도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589	1.9	4.9	27.2	66.0	10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N (%)	χ^2	df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성별	남	315 (53.5)	2.7	3	1.6	5.1	29.8	63.5
	여	274 (46.5)			2.2	4.7	24.1	69.0
가족	핵가족	456 (77.4)	11.5	18	2.2	4.8	26.5	66.4
	대가족	87 (14.8)			1.1	4.6	28.7	65.5
	아버지	7 (1.2)			0.0	0.0	0.0	100.0
	어머니	21 (3.6)			0.0	4.8	38.1	57.1
	조부모	15 (2.5)			0.0	13.3	40.0	46.7
	친척	2 (0.3)			0.0	0.0	0.0	100.0
	혼자	1 (0.2)			0.0	0.0	0.0	100.0
친척	왕래함	453 (76.9)	4.5	3	1.3	5.5	27.4	65.8
	왕래안함	136 (23.1)			3.7	2.9	26.5	66.9

종교	불교	289 (48.8)	19.5	15	1.7	5.5	23.5	69.2
	개신교	67 (11.4)			3.0	7.5	32.8	56.7
	천주교	88 (14.9)			0.0	4.5	25.0	70.5
	유교	3 (0.5)			0.0	33.3	33.3	33.3
	기타종교	28 (4.8)			0.0	3.6	35.7	60.7
	종교없음	114 (19.4)			3.5	1.8	32.5	62.3
학력	초등학교	24 (4.1)	28.4*	15	0.0	0.0	41.7	58.3
	중학교	66 (11.2)			0.0	6.1	25.8	68.2
	고등학교	314 (53.3)			2.5	3.8	27.4	66.2
	대학(교)	158 (26.9)			1.3	6.9	24.7	67.1
	대학원	27 (4.6)			3.7	7.4	29.6	59.3
직업	농·어업	119 (20.2)	22.2	21	0.8	4.2	27.7	67.2
	상업	139 (23.6)			2.9	7.2	33.8	56.1
	공업	39 (5.1)			0.0	0.0	30.0	70.0
	공무원	82 (13.9)			1.2	3.7	28.0	67.1
	회사원	86 (14.6)			2.3	4.7	15.1	77.9
	운수업	60 (10.2)			1.7	8.3	20.0	70.0
	노동	57 (9.7)			3.5	1.8	31.6	63.2
	직업없음	16 (2.7)			0.0	6.3	31.3	62.5

* p < .05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므로 성별에 따른 남·여 간 효도에 대한 태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확실히 그렇다'의 강한 긍정적인 면에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높게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만 사는 가정>의 학생은 100% '확실히 그렇다'에 반응하였다.

친척 교류 관계에 따른 결과에서는 두 가정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으며, 종교의 결과에서 강한 긍정적 반응에서 전체 반응 결과(66.0%)보다 높게 나타난 종교를 보면 <불교>69.2%, <천주교>70.5% 이었다.

보호자의 학력에 따른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므로 보호자의 학력에 따른 효도에 대한 태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강한 긍정적 반응에 전체 반응 결과보다 낮게 나타난 학력을 보면, <초등학교>58.3%, <대학원>59.3% 이었다.

보호자의 직업에 따른 결과에서는 강한 긍정적 반응에 전체 반응 결과(66.0%)보다 높게 나타난 직업을 보면, <농·어업>67.2%, <공업·운수업>70.0%, <공무원>67.1%, <회사원>77.9% 이었다.

3. 순종 의식

1) 순종에 대한 행동적인 면

순종에 행동적인 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나는 부모님이 심부름이나 공부를 하라고 하면 즉시 ‘예’하고 따른다」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확실히 그렇다’ 19.4%와 ‘대체로 그렇다’ 59.1%로 긍정적 반응이 78.5%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19.2%와 ‘확실히 그렇지 않다’ 2.4%로 부정적 반응도 21.6%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을 배경 원인에 따라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 순종에 대한 행동적인 면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계
나는 부모님이 심부름이나 공부를 하라고 하시면 즉시 ‘예’하고 듣는다.	589	2.4	19.2	59.1	19.4	10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N (%)	x ²	df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성별	남	315 (53.5)	2.8	3	1.6	18.4	59.0	21.0
	여	274 (46.5)			3.3	20.1	59.1	17.5
가족	핵가족	456 (77.4)	15.7	18	2.2	19.5	58.6	19.7
	대가족	87 (14.8)			1.1	20.7	59.8	18.4
	아버지	7 (1.2)			14.3	0.0	42.9	42.9
	어머니	21 (3.6)			4.8	19.0	66.7	9.5
	조부모	15 (2.5)			6.7	6.7	66.7	20.0
	친척	2 (0.3)			0.0	50.0	50.0	0.0
	혼자	1 (0.2)			0.0	0.0	100.0	0.0
친척	왕래함	453 (76.9)	15.1	3	2.4	18.1	59.6	19.9
	왕래안함	136 (23.1)			2.2	22.8	57.4	17.6

종교	불교	289 (48.8)	10.4	15	2.4	17.0	59.2	21.5
	개신교	67 (11.4)			1.5	26.9	61.2	10.4
	천주교	88 (14.9)			2.3	21.6	54.5	21.6
	유교	3 (0.5)			0.0	33.3	33.3	33.3
	기타종교	28 (4.8)			0.0	17.9	67.9	14.3
	종교없음	114 (19.4)			3.5	18.4	59.6	18.4
학력	초등학교	24 (4.1)	56.8***	15	0.0	29.2	33.3	37.5
	중학교	66 (11.2)			1.5	24.2	56.1	18.2
	고등학교	314 (53.3)			1.9	17.5	63.1	17.5
	대학(교)	158 (26.9)			4.4	19.0	57.6	19.0
	대학원	27 (4.6)			0.0	18.5	51.9	29.6
직업	농·어업	119 (20.2)	17.3	21	1.7	18.5	59.7	20.2
	상업	139 (23.6)			2.9	23.7	59.7	13.7
	공업	39 (5.1)			6.7	10.0	60.0	23.3
	공무원	82 (13.9)			3.7	14.6	57.3	24.4
	회사원	86 (14.6)			3.5	20.9	58.1	17.4
	운수업	60 (10.2)			0.0	23.3	53.3	23.3
	노동	57 (9.7)			0.0	15.8	64.9	19.3
	직업없음	16 (2.7)			0.0	12.5	62.5	25.0

*** p< .001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부모님께 순응하고 있다.

보호자의 학력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0.1% 에서 유의하므로 성별에 따른 남·여간 효도에 대한 태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확실히 그렇다’의 반응은 <대학원>29.6% 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학력은 <고등학교>17.5% 이었다. 그리고 ‘확실히 그렇지 않다’의 강한 부정적 반응의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와 대학원> 가정의 학생은 없었다.

가족구성원·친척 교류 관계·가족이 믿고 있는 종교·보호자의 직업에 따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친척 교류에서 <자주 왕래하는 가정>의 학생이 긍정적인 면에 반응율이 높았다.

2) 순종에 대한 정의적인 면

순종에 대한 정의적인 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님이 정해진 결혼상대자와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확실히 그렇다’ 4.8%와 ‘대체로 그렇다’ 14.1%로 긍정적 반응이 18.9%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47.5%와 ‘확실히 그렇지 않다’ 33.6%로 부정적 반응이 81.1%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심부름이나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조그만 지시에는 부정적 반응이 21.6% 였으나, 앞으로의 중대한 생활에 대해선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권위의 도전(81.1%)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배경 원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 통계량을 이용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6>과 같다.

<표 IV-6> 순종에 대한 정의적인 면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계
부모님이 정해진 결혼상대와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다.	589	33.6	47.5	14.1	4.8	10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N (%)	χ^2	df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성별	남	315 (53.5)	6.8*	3	34.3	43.5	16.2	6.0
	여	274 (46.5)			32.8	52.2	11.7	3.3
가족	핵가족	456 (77.4)	20.5	18	36.0	46.3	12.9	4.8
	대가족	87 (14.8)			31.0	49.4	14.9	4.6
	아버지	7 (1.2)			0.0	85.7	14.3	0.0
	어머니	21 (3.6)			9.5	52.4	33.3	4.8
	조부모	15 (2.5)			26.7	46.7	20.0	6.7
	친척	2 (0.3)			0.0	100.0	0.0	0.0
	혼자	1 (0.2)			100.0	0.0	0.0	0.0
친척	왕래함	453 (76.9)	2.8	3	34.4	48.1	13.2	4.2
	왕래안함	136 (23.1)			30.9	45.6	16.9	6.6
종교	불교	289 (48.8)	15.3	15	34.6	45.3	14.9	5.2
	개신교	67 (11.4)			26.9	55.2	13.4	4.5
	천주교	88 (14.9)			33.0	54.5	9.1	3.4
	유교	3 (0.5)			0.0	33.3	66.7	0.0
	기타종교	28 (4.8)			32.1	50.0	17.9	0.0
	종교없음	114 (19.4)			36.8	43.0	14.0	6.1

학 력	초등학교	24 (4.1)	10.2	15	33.3	41.7	20.8	4.2
	중학교	66 (11.2)			24.2	51.5	18.2	6.1
	고등학교	314 (53.3)			33.1	48.1	13.7	5.1
	대학(교)	158 (26.9)			39.2	44.3	13.3	3.2
	대학원	27 (4.6)			29.6	55.6	7.4	7.4
직 업	농·어업	119 (20.2)	14.0	21	34.5	48.7	12.6	4.2
	상업	139 (23.6)			34.5	51.1	10.8	3.6
	공업	39 (5.1)			26.7	43.3	23.3	6.7
	공무원	82 (13.9)			35.4	47.6	13.4	3.7
	회사원	86 (14.6)			38.4	43.0	14.0	4.7
	운수업	60 (10.2)			36.7	41.7	15.0	6.7
	노동	57 (9.7)			24.6	52.6	15.8	7.0
	직업없음	16 (2.7)			18.8	43.8	31.3	6.3

* p < .05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므로 성별에 따른 남·여 간 효과에 대한 태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남자>가 <여자>보다 순종하는 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족구성원에서 보면, <아버지하고만 사는> 학생은 강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으며, 강한 부정이 높은 가정은 <핵가족>36% 이었다.

친척 교류 관계에서는 <친척이 자주 왕래하지 않는 가정>의 학생이 부모에게 더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믿고 있는 종교에서 보면, 부정적 반응이 전체의 반응 결과(81.1%) 보다 높은 종교를 보면, <개신교·기타 종교>82.1%, <천주교>87.5% 이었다.

4. 시봉 의식

1) 시봉에 대한 행동적인 면

시봉에 대한 행동적인 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나는 자주 부모님과 대화를 하며, 조그만 문제도 부모님에게 조언을 얻는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확실히 그렇다’ 18.0%와 ‘대체로 그렇다’ 54.7%로 긍정적 반응이 72.7%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23.9%와 ‘확실히 그렇지 않다’ 3.4%로 부정적 반응이 27.3%로 나타났다.

부모와 대화를 대체로 하고 있는 가정을 가끔 하는 것으로 볼 때, 확실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가정은 18%에 불과하여 자기중심적인 생활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인관계에 비협조적이고 적절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배경 원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 통계량을 이용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시봉에 대한 행동적인 면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나는 자주 부모님과 대화를 하며, 조그만 문제도 부모님에게 조언을 얻는다.	589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계
		3.4	23.9	54.7	18.0	10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N (%)	χ^2	df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성별	남	315 (53.5)	18.2***	3	4.8	28.9	52.7	13.7
	여	274 (46.5)			1.8	18.2	56.9	23.0
가족	핵가족	456 (77.4)	10.3	18	3.3	22.6	56.1	18.0
	대가족	87 (14.8)			3.4	25.3	50.6	20.7
	아버지	7 (1.2)			0.0	14.3	71.4	14.3
	어머니	21 (3.6)			4.8	33.3	47.6	14.3
	조부모	15 (2.5)			6.7	46.7	33.3	13.3
	친척	2 (0.3)			0.0	50.0	50.0	0.0
	혼자	1 (0.2)			0.0	0.0	100.0	0.0
친척	왕래함	453 (76.9)	9.2*	3	3.1	22.1	54.5	20.3
	왕래안함	136 (23.1)			4.4	30.1	55.1	10.3
종교	불교	289 (48.8)	13.6	15	2.8	23.5	53.3	20.4
	개신교	67 (11.4)			1.5	22.4	62.7	13.4
	천주교	88 (14.9)			5.7	26.1	54.5	13.6
	유교	3 (0.5)			0.0	66.7	33.3	0.0
	기타종교	28 (4.8)			3.6	28.6	39.3	28.6
	종교없음	114 (19.4)			4.4	21.9	57.9	15.8
학 력	초등학교	24 (4.1)	11.6	15	4.2	29.2	37.5	29.2
	중학교	66 (11.2)			1.5	28.8	53.0	16.7
	고등학교	314 (53.3)			3.8	25.5	54.1	16.6
	대학(교)	158 (26.9)			2.5	19.6	59.5	18.4
	대학원	27 (4.6)			7.4	14.8	51.9	25.9

직업	농·어업	119 (20.2)	18.8	21	4.2	29.4	48.7	17.6
	상업	139 (23.6)			2.9	27.3	53.2	16.5
	공업	39 (5.1)			3.3	13.3	66.7	16.7
	공무원	82 (13.9)			3.7	24.4	48.8	23.2
	회사원	86 (14.6)			3.5	15.1	66.3	15.1
	운수업	60 (10.2)			3.3	20.0	51.7	25.0
	노동	57 (9.7)			3.5	24.6	61.4	10.5
	직업없음	16 (2.7)			0.0	31.3	43.8	25.0

*p< .05, ***p< .001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므로 성별에 따른 남·여간 효도에 대한 태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여자>가 <남자>보다 시봉하는 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친척 교류 정도에서 보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며 <친척이 자주 왕래하는 가정>의 학생이 <왕래 안함>의 학생보다 10%이상 '부모님과 대화를 하며 조언을 얻는다'라고 하였다.

전체의 강한 긍정적 반응 결과(18.0%)보다 높은 종교를 보면 <불교>20.4%, <기타 종교>28.6% 이며, 학력에서 보면 <초등학교>29.2%, <대학원>25.9% 뿐이며, 직업으로 보면 <공무원> 23.2%, <운수업·직업 없음>25.0% 이었다.

2) 시봉에 대한 정의적인 면

시봉에 대한 정의적인 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른이 되어 살기 어려워도 부모님을 양로원에 보내지 않고 끝까지 모셔야 한다」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확실히 그렇다' 82.9%와 '대체로 그렇다' 14.4%로 긍정적 반응이 97.3%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1.2%와 '확실히 그렇지 않다' 1.5%로 부정적 반응이 2.7%에 불과했다. 이로 보아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와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볼 수 있으나, 행동적 측면의 결과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것을 배경 원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 통계량을 이용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시봉에 대한 정의적인 면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어른이 되어 살기 어려워도 부모님을 양로원에 보내지 않고 끝까지 모셔야 한다.	89	1.5	1.2	14.4	82.9	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연 령	변 인	변인구성비 N (%)	3	d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발 성	남	315 (535)	3	3	1.9	1.0	16.5	80.6
	여	274 (465)			1.1	1.5	12.0	85.4
학 령	학부	456 (774)	8	8	2.0	1.3	13.6	83.1
	대학	87 (148)			0.0	0.0	13.8	86.2
	대학원	7 (12)			0.0	0.0	0.0	100
	아니	21 (36)			0.0	0.0	23.8	76.2
	초급	15 (25)			0.0	6.7	33.3	60.0
	진척	2 (0.3)			0.0	0.0	0.0	100
	혼자	1 (0.2)			0.0	0.0	100	0.0
친척	양친	453 (769)	6	3	1.3	1.1	14.6	83.0
	양친	136 (231)			2.2	1.5	14.0	82.4
교종	불교	289 (488)	8	51	1.4	1.4	13.5	83.7
	개교	67 (114)			0.0	0.0	14.9	85.1
	천교	88 (149)			2.3	2.3	14.8	80.7
	유교	3 (0.5)			0.0	0.0	33.3	66.7
	기타	28 (48)			0.0	0.0	7.1	92.9
	종교없음	114 (194)			2.6	0.9	17.5	79.0
학력	초급	24 (41)	10	51	4.2	0.0	16.7	79.2
	중급	66 (112)			0.0	3.0	21.2	75.8
	고급	314 (533)			1.6	1.6	12.7	84.1
	대학원	158 (269)			1.9	0.0	14.6	83.5
	대학원	27 (46)			0.0	0.0	14.8	85.2
업종	농업	119 (202)	3	12	0.0	0.8	18.5	80.7
	상업	139 (236)			3.6	0.7	13.7	82.0
	공업	39 (51)			3.3	3.3	16.7	76.7
	공원	82 (139)			1.2	0.0	17.1	81.7
	화원	86 (146)			2.3	1.2	7.0	89.5
	운수업	60 (102)			0.0	3.3	20.0	76.7
	노동	57 (97)			0.0	1.8	10.5	87.7
	직업없음	16 (27)			0.0	0.0	6.3	93.7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로 보면 ‘확실히 그렇다’의 강한 긍정적 반응은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높았다. 가족구성원에서 보면 <아버지하고만 사는 가정>의 학생은 100% ‘확실히 그렇다’에 반응을 하였으며, <대가족>의 학생은 86.2%, <핵가족>의 가정은 83.1%였다.

보호자의 직업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직업간에는 큰 차이는 없으나, 강한 긍정 반응을 보인 순서대로 보면, <직업 없음>93.8%, <회사원>89.5%, <노동>87.7%, <상업>82.0%, <공무원>81.7%, <농·어업>80.7%, <공업·운수업>76.7%이었다.

학력에 따른 결과에서 전체의 강한 긍정적 반응(82.9%)보다 높은 반응을 나타낸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보호자의 학생들이었다.

5. 양지 의식

1) 양지에 대한 행동적인 면

양지에 대한 행동적인 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자주 되새기며, 항상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확실히 그렇다’ 12.4%와 ‘대체로 그렇다’ 12.4%로 긍정적 반응이 83.9%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15.6%와 ‘확실히 그렇지 않다’ 0.5%로 부정적 반응이 27.3% 나타났다.

확실하게 부모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자제하려는 아동이 12.4%에 불과하여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깊이 새겨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배경 원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 통계량을 이용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양지에 대한 행동적인 면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자주 되새기며, 항상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한다.	985	0.5	15.6	71.5	12.4
					10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연령	성별	변인구성비 N (%)	F	df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별	남	315 (53.5)	6	3	0.3	18.4	71.1	18.2
	여	274 (46.5)			0.7	12.4	71.9	15.0
족	핵가족	456 (77.4)	9	81	0.7	15.1	71.5	12.7
	대가족	87 (14.8)			0.0	17.2	71.3	11.5
	어차	7 (1.2)			0.0	0.0	85.7	14.3
	여차	21 (3.6)			0.0	19.0	71.4	9.5
	조부모	15 (2.5)			0.0	20.0	66.7	13.3
	친척	2 (0.3)			0.0	0.0	100.0	0.0
	혼자	1 (0.2)			0.0	100.0	0.0	0.0
친척	양친	453 (76.9)	9	3	0.7	13.2	72.8	13.2
	양친	136 (23.1)			0.0	23.5	66.9	9.6
교	불교	289 (48.8)	8	51	0.3	14.5	74.0	11.1
	개교	67 (11.4)			0.0	13.4	77.6	9.0
	천교	88 (14.9)			0.0	19.3	64.8	15.9
	유교	3 (0.5)			0.0	0.0	66.7	33.3
	기타교	28 (4.8)			0.0	7.1	71.4	21.4
	종교없음	114 (19.4)			1.8	19.3	66.7	12.3
학	초교	24 (4.1)	9	51	0.0	29.2	58.3	12.5
	중교	66 (11.2)			0.0	21.2	63.6	15.2
	고교	314 (53.3)			0.6	14.3	74.5	10.5
	대교	158 (26.9)			0.6	15.2	70.3	13.9
	대원	27 (4.6)			0.0	7.4	74.1	18.5
업	농업	119 (20.2)	9	12	0.0	20.2	65.5	14.3
	상업	139 (23.6)			0.0	12.2	77.7	10.1
	공업	39 (5.1)			3.3	10.0	83.3	3.3
	공원	82 (13.9)			1.2	17.1	67.1	14.6
	화원	86 (14.6)			1.2	17.4	68.6	12.8
	운업	60 (10.2)			0.0	15.0	73.3	11.7
	노동	57 (9.7)			0.0	14.0	75.4	10.5
	직업없음	16 (2.7)			0.0	12.5	56.3	31.3

* p < .05

<표 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간의 차이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부모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므로 성별에 따른 남·여간 효도에 대한 태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가족 구성에 따른 결과에서는 <아버지 또는 조부모하고만 사는 가정>의 학생이 전체의 강한 긍정적 반응보다 높았다.

친척 교류 정도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며, 긍정적인 반응에서 <친척이 자주 왕래하는 가정>의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이 믿고 있는 종교에서 따른 결과를 보면 강한 긍정적 반응(12.4%)보다 높은 종교는 <천주교>15.9%, <기타 종교> 21.4% 뿐이었다.

보호자의 학력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29.2%, <중학교>21.2%, <고등학교>14.3%, <대학(교)>15.2%, <대학원>7.4%로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직업에서 '확실히 그렇다'의 강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결과에서 보면, <직업이 없는 가정>의 학생이 31.3%로 가장 높았고, <공업>의 가정의 학생이 3.3%로 가장 적게 반응하였다.



2) 양지에 대한 정의적인 면

양지에 대한 정의적인 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약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으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 반응 결과를 보면 '확실히 그렇다' 10.2%와 '대체로 그렇다' 28.5%로 긍정적 반응이 38.7%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49.9%와 '확실히 그렇지 않다' 11.4%로 부정적 반응이 27.3% 나타났다. 행동적 측면의 긍정적 반응(83.9%)과는 대조를 보인다.

이것을 배경 원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 통계량을 이용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양지에 대한 정의적인 면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만약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으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95	11.4	49.9	28.5	10.2
					1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연 령	변 인	변인구성비 N (%)	3	df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발 성	남	315 (535)	3	3	12.1	45.7	29.8	11.4
	여	274 (465)			10.6	53.6	27.0	8.8
학 령	학부	456 (774)	8	81	10.7	51.1	28.3	9.9
	대학	87 (148)			13.8	49.4	28.7	8.0
	대학원	7 (12)			14.3	28.6	28.6	28.6
	아니	21 (36)			9.5	33.3	38.1	19.1
	중학교	15 (25)			20.0	53.3	20.0	6.7
	초등학교	2 (0.3)			0.0	50.0	50.0	0.0
	혼자	1 (0.2)			0.0	0.0	0.0	100.0
친척	양친	453 (769)	10	3	11.5	50.3	27.6	10.6
	양친	136 (231)			11.0	48.5	31.6	8.8
교 육	불교	289 (488)	9	51	10.7	47.4	31.8	10.1
	개교	67 (114)			10.4	53.2	26.9	7.5
	천주교	88 (149)			8.0	62.5	20.5	9.1
	유교	3 (0.5)			0.0	33.3	66.7	0.0
	기타종교	28 (48)			3.6	33.3	46.4	16.7
	종교없음	114 (194)			18.4	46.5	21.9	13.2
학 령	초등학교	24 (41)	6	51	12.5	54.2	16.7	16.7
	중학교	66 (112)			9.1	51.5	31.8	7.6
	고등학교	314 (533)			11.1	49.0	31.2	8.6
	대학교	158 (269)			13.9	50.0	23.4	12.7
	대학원	27 (46)			3.7	51.9	29.6	14.8
업 령	농업	119 (202)	9	12	13.4	56.3	20.2	10.1
	상업	139 (236)			10.8	46.8	34.5	7.9
	공업	39 (51)			13.3	60.0	20.0	6.7
	공무원	82 (139)			11.0	47.6	28.0	13.4
	화원	86 (146)			8.1	46.5	31.4	14.0
	운수업	60 (102)			8.3	65.0	20.0	6.7
	노동	57 (97)			15.8	31.6	43.9	8.8
	직업없음	16 (27)			12.5	50.0	18.8	18.8

* p < .05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결과는 긍정적인 반응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구성원에 따른 결과를 보면, 긍정적 반응에서 <정상 가정>보다 <결혼 가정>의 학생(아버지나 어머니하고만 사는)들이 더 높게 반응하고 있으며, 부정적 반응에서는 <조부모하고만 사는 가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경 원인 가족이 믿고 있는 종교에 따른 결과를 보면, '확실히, 대체로 그렇다'의 전체적 반응(38.7%)보다 높게 나타난 가정을 보면, <아버지>57.2%, <어머니>57.1% 뿐이었다. 종교에 따른 통계의 결과도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므로 가족이 믿고 있는 종교에 따른 남·여간 효도에 대한 태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배경 원인 보호자의 학력에 따른 결과를 보면, '확실히, 대체로 그렇다'의 전체적 반응(38.7%)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난 가정을 보면, <대학원>44.4% 뿐이었다.

보호자의 직업에 따른 결과에서 '확실히 그렇다'의 전체적 반응 결과(10.2%)보다 높게 나타난 직업은 <공무원>13.4%, <회사원>14.0%, <직업 없음>이 18.8%였다.

6. 봉양 의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봉양에 대한 행동적인 면

봉양에 대한 행동적인 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나는 부모님이 일하고 돌아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고 위로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확실히 그렇다' 28.9%와 '대체로 그렇다' 53.7%로 긍정적 반응이 82.6%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15.3%와 '확실히 그렇지 않다' 2.2%로 부정적 반응이 27.3% 나타났다.

이것을 배경 원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 통계량을 이용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봉양에 대한 행동적인 면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나는 부모님이 일하고 돌아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고 위로를 해드리고 있다.	98	2.2	15.3	53.7	28.9	10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연령	성별	변인구성비 N (%)	χ ²	df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별	남	315 (53.5)	48	3	2.5	162	56.2	21
	여	274 (46.5)			1.8	142	50.7	32
족	핵가족	456 (77.4)	97	81	2.2	151	52.9	28
	대가족	87 (14.8)			1.1	126	63.2	20
	어차	7 (1.2)			14.3	143	28.6	49
	여차	21 (3.6)			0.0	238	42.9	33
	조부모	15 (2.5)			6.7	200	53.3	20
	친척	2 (0.3)			0.0	0.0	50.0	50
	혼자	1 (0.2)			0.0	100	0.0	0.0
친척	양친	453 (76.9)	16	3	2.0	121	54.5	33
	생친	136 (23.1)			2.9	257	50.7	26
교	불교	289 (48.8)	5	51	1.0	152	50.9	39
	개교	67 (11.4)			1.5	179	61.2	19
	천교	88 (14.9)			4.5	114	54.5	25
	유교	3 (0.5)			0.0	333	66.7	00
	기타교	28 (4.8)			3.6	143	46.4	37
	종교없음	114 (19.4)			3.5	167	57.0	28
학	초교	24 (4.1)	9	51	4.2	125	54.2	22
	중교	66 (11.2)			3.0	182	43.9	38
	고교	314 (53.3)			2.9	166	52.2	28
	대원	158 (26.9)			0.6	127	59.5	22
	대원	27 (4.6)			0.0	111	59.3	26
업	농업	119 (20.2)	3	12	1.7	134	54.6	33
	상업	139 (23.6)			2.9	173	51.1	28
	공업	39 (5.1)			10.0	6.7	60.0	23
	공원	82 (13.9)			0.0	195	56.1	24
	화원	86 (14.6)			1.2	116	52.3	39
	운업	60 (10.2)			1.7	150	55.0	28
	노동	57 (9.7)			1.8	193	49.1	28
	직업없음	16 (2.7)			6.3	125	62.5	18

*** p < .001

<표 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확실히 그렇게 한다'의 반응에 <여자>가 8% 이상 <남자>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족구성원에 따른 결과에서 전체의 강한 긍정적 반응의 결과(28.9%)보다 높게 나타난 가족의 구성을 보면, <핵가족>29.8%, <아버지>42.9%, <어머니>33.3% 이었다.

친척 교류 정도에 따른 결과를 보면 <친척이 자주 왕래하는 가정>의 학생이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므로 친척 교류 정도에 따른 효도에 대한 태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가족이 믿고 있는 종교에 따른 결과에서 전체의 강한 긍정적 반응의 결과(28.9%)보다 높게 나타난 종교를 보면, <불교>32.9%, <천주교>29.5%, <기타 종교>35.7% 이었다.

보호자의 직업에 따른 결과에서 전체의 강한 긍정적 반응의 결과(28.9%)보다 높게 나타난 직업을 보면, <농·어업>30.3%, <회사원>34.9%, <노동>29.8% 이었다.

2) 봉양에 대한 정의적인 면

봉양에 대한 정의적인 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물건을 보면 가져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확실히 그렇다' 41.8%, '대체로 그렇다' 46.7%로 긍정적 반응이 88.5%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9.7%, '확실히 그렇지 않다' 1.9%로 부정적 반응이 11.6% 나타났다. 긍정적 반응에서 행동적 측면의 결과와 비슷하여 부모에게 봉양하고 있으며, 그렇겠다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배경 원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 통계량을 이용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 봉양에 대한 정의적인 면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물건을 보면 가져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589	1.9	9.7	46.7	41.8	10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N (%)	x ²	df	반응구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성별	남	315 (53.5)	12.0**	3	1.9	10.5	52.4	35.2
	여	274 (46.5)			1.8	8.8	40.1	49.3
가족	핵가족	456 (77.4)	18.8	18	2.0	10.1	45.0	43.0
	대가족	87 (14.8)			0.0	6.9	56.3	36.8
	아버지	7 (1.2)			0.0	0.0	42.9	57.1
	어머니	21 (3.6)			4.8	4.8	52.4	38.1
	조부모	15 (2.5)			6.7	26.7	33.3	33.3
	친척	2 (0.3)			0.0	0.0	100.0	0.0
	혼자	1 (0.2)			0.0	0.0	0.0	100.0
친척	왕래함	453 (76.9)	1.0	3	1.8	9.3	46.1	42.8
	왕래안함	136 (23.1)			2.2	11.0	48.5	38.2
종교	불교	289 (48.8)	6.0	15	1.7	9.0	48.4	40.8
	개신교	67 (11.4)			3.0	11.9	46.3	38.8
	천주교	88 (14.9)			1.1	10.2	44.3	44.3
	유교	3 (0.5)			0.0	0.0	66.7	33.3
	기타종교	28 (4.8)			0.0	7.1	35.7	57.1
	종교없음	114 (19.4)			2.6	10.5	46.5	40.4
학력	초등학교	24 (4.1)	25.0*	15	4.2	12.5	58.3	25.0
	중학교	66 (11.2)			1.5	16.7	39.4	42.4
	고등학교	314 (53.3)			1.6	8.6	48.4	41.4
	대학(교)	158 (26.9)			1.2	7.6	45.6	45.6
	대학원	27 (4.6)			7.4	14.8	40.7	37.0
직업	농·어업	119 (20.2)	17.6	21	2.5	7.6	46.2	43.7
	상업	139 (23.6)			3.6	12.9	46.0	37.4
	공업	39 (5.1)			0.0	6.7	40.0	53.3
	공무원	82 (13.9)			1.2	9.8	50.0	39.0
	회사원	86 (14.6)			0.0	10.5	41.9	47.7
	운수업	60 (10.2)			0.0	10.0	55.0	35.0
	노동	57 (9.7)			1.8	5.3	50.9	42.1
	직업없음	16 (2.7)			6.3	12.5	31.3	50.0

*p< .05, ** p< .01

<표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서 강한 긍정적 반응에 따른 결과를 보면, <여자>는 전체의 반응(41.8%)보다 49.8%로 높은데, <남자>는 35.2%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남·여간 호도에 대한 태도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므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가족구성원에 따른 결과를 보면, 강한 긍정적 반응에 전체의 반응(41.8%)보다 높게 나타난 가족의 구성을 보면, <핵가족>43.0%, <아버지하고만>57.1% 뿐이었

다. 보호자의 학력에서 강한 긍정적 반응에 따른 결과를 보면, 전체의 반응(41.8%)보다 낮게 나타난 직업을 보면 <초등학교>25.0%, <대학원>37.0% 뿐이었다.

7. 간언 의식

1) 간언에 대한 행동적인 면

간언에 대한 행동적인 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못한 생각이 들면 그 옳지 않은 것을 말씀드린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확실히 그렇다’ 16.6%와 ‘대체로 그렇다’ 45.2%로 긍정적 반응이 61.8%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30.6%와 ‘확실히 그렇지 않다’ 7.6%로 부정적 반응이 38.2%로 나타났다.

이것을 배경 원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 통계량을 이용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 간언에 대한 행동적인 면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계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못한 생각이 들면 그 옳지 않은 것을 말씀드린다.	589	7.6	30.6	45.2	16.6	10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N (%)	χ^2	df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성별	남	315 (53.5)	4.6	3	7.9	32.1	41.3	18.7
	여	274 (46.5)			7.3	28.8	49.6	14.2
가족	핵가족	456 (77.4)	17.3	18	8.1	29.8	45.6	16.4
	대가족	87 (14.8)			4.6	29.9	49.4	16.1
	아버지	7 (1.2)			0.0	28.6	42.9	28.6
	어머니	21 (3.6)			9.5	23.8	38.1	28.6
	조부모	15 (2.5)			13.3	53.3	26.7	6.7
	친척	2 (0.3)			0.0	100.0	0.0	0.0
혼자	1 (0.2)	0.0	100.0	0.0	0.0			

친척	왕래함	453 (76.9)	6.3*	3	7.1	28.5	46.6	17.9
	왕래안함	136 (23.1)			9.6	37.5	40.4	12.5
종교	불교	289 (48.8)	19.8	15	5.9	34.6	45.3	14.2
	개신교	67 (11.4)			9.0	35.8	43.3	11.9
	천주교	88 (14.9)			8.0	26.1	45.5	20.5
	유교	3 (0.5)			33.3	33.3	0.0	33.3
	기타종교	28 (4.8)			7.1	35.7	39.3	17.9
	종교없음	114 (19.4)			10.5	19.3	48.2	21.9
학력	초등학교	24 (4.1)	33.5**	15	16.7	50.0	25.0	8.3
	중학교	66 (11.2)			7.6	40.9	36.4	15.2
	고등학교	314 (53.3)			6.4	30.9	46.8	15.9
	대학(교)	158 (26.9)			8.2	26.6	46.2	20.0
	대학원	27 (4.6)			11.1	7.4	59.3	22.2
직업	농·어업	119 (20.2)	20.3	21	5.0	36.1	46.2	12.6
	상업	139 (23.6)			7.9	28.8	46.8	16.5
	공업	39 (5.1)			6.7	40.0	36.7	16.7
	공무원	82 (13.9)			4.9	25.6	46.3	23.2
	회사원	86 (14.6)			9.3	25.6	47.7	17.4
	운수업	60 (10.2)			8.3	43.3	36.7	11.7
	노동	57 (9.7)			10.5	22.8	47.4	19.3
	직업없음	16 (2.7)			18.8	18.8	43.8	18.8

*p< .05, **p< .01



<표 IV-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결과는 긍정적인 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높게 반응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에 따른 결과는 ‘확실히 그렇다’의 반응이 전체의 결과(16.6%)보다 높게 나타난 가족의 구성을 보면, 결혼 가정인 <아버지하고만>28.6%, <어머니하고만>28.6% 뿐이었다.

친척 교류 정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친척 교류가 많은 가정>의 학생이 <친척 교류가 적은 가정>의 학생보다 긍정적인 반응에서 높게 유의수준 5%에서 관련성이 있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가족이 믿고 있는 종교에서 ‘확실히 그렇다’의 강한 긍정적 반응에서 전체의 결과(16.6%)보다 높게 나타난 종교를 보면, <천주교>20.5%, <종교 없음>21.9% 이었다.

학력에 따른 결과는 보호자의 학력이 높은 가정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통계 결과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다.

직업에 따른 결과에서 ‘확실히 그렇다’의 강한 긍정적 반응에서 전체의 결과(16.6%)보다 높게 나타난 직업을 보면, <공업>16.7%, <회사원>17.4%, <직업 없음>18.8%, <노동>19.3%, <공무원>23.2% 이었다.

2) 간언에 대한 정의적인 면

간언에 대한 정의적인 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후에 자식이 나의 잘못을 얘기하면 자식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확실히 그렇다’ 36.3%와 ‘대체로 그렇다’ 53.8%로 긍정적 반응이 90.1%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7.5%와 ‘확실히 그렇지 않다’ 2.4%로 부정적 반응이 9.9% 나타났다. 행동적 측면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나 가정 내에서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배경 원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 통계량을 이용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 간언에 대한 정의적인 면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후에 자식이 나의 잘못을 얘기하면 자식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고 생각한다.	589	확실히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계
		2.4	7.5	53.8	36.3	10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N (%)	χ^2	df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성별	남	315 (53.5)	3.2	3	2.9	8.9	51.4	36.8
	여	274 (46.5)			1.8	5.8	56.6	35.8
가족	핵가족	456 (77.4)	21.3	18	2.6	6.8	54.2	36.4
	대가족	87 (14.8)			2.3	8.0	51.7	37.9
	아버지	7 (1.2)			0.0	0.0	85.7	14.3
	어머니	21 (3.6)			0.0	4.8	47.6	47.6
	조부모	15 (2.5)			0.0	33.3	46.7	20.0
	친척	2 (0.3)			0.0	0.0	50.0	50.0
	혼자	1 (0.2)			0.0	0.0	100.0	0.0
친척	왕래함	453 (76.9)	4.0	3	1.8	7.3	53.4	37.5
	왕래안함	136 (23.1)			4.4	8.1	55.1	32.4
종교	불교	289 (48.8)	7.5	15	2.1	8.0	56.1	33.9
	개신교	67 (11.4)			4.5	9.0	52.2	34.3
	천주교	88 (14.9)			1.1	5.7	54.5	38.6
	유교	3 (0.5)			0.0	0.0	33.3	66.7
	기타종교	28 (4.8)			0.0	7.1	46.4	46.4
	종교없음	114 (19.4)			3.5	7.0	50.9	38.6

학 력	초등학교	24 (4.1)	11.5	15	4.2	12.5	45.8	37.5
	중학교	66 (11.2)			0.0	12.1	59.1	28.8
	고등학교	314 (53.3)			2.2	5.7	54.8	37.3
	대학(교)	158 (26.9)			3.8	8.2	50.0	40.0
	대학원	27 (4.6)			0.0	7.4	59.3	33.3
직 업	농·어업	119 (20.2)	17.7	21	1.7	8.4	55.5	34.5
	상업	139 (23.6)			2.2	9.4	52.5	36.0
	공업	39 (5.1)			0.0	6.7	53.3	40.0
	공무원	82 (13.9)			0.0	4.9	51.2	43.9
	회사원	86 (14.6)			5.8	5.8	50.0	38.4
	운수업	60 (10.2)			5.0	8.3	61.7	25.0
	노동	57 (9.7)			1.8	7.0	57.9	33.3
	직업없음	16 (2.7)			0.0	6.3	43.8	50.0

<표 I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결과를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가족구성원에 따른 결과를 보면, ‘확실히 그렇다’의 강한 긍정적 반응에서 전체의 결과(36.3%)보다 높게 나타난 가족 형태는 <핵가족>36.4%, <대가족>37.9%, <어머니하고만>47.6% 이었다.

다음으로 각 변인별로 전체 결과의 강한 긍정적 반응(36.3%)보다 높은 변인을 보면,

종교에서는 <천주교>38.3%, <기타 종교>46.4%, <종교 없음>38.6% 였으며, 학력에서는 <고등학교>37.3%, <초등학교>37.5%, <대학교>40.0% 였다.

직업에서는 <회사원>38.4%, <공업>40.0%, <공무원>43.9% 이고 <직업 없음>이 50.0%로 가장 높았다.

8. 봉사 의식

1) 봉사에 대한 정의적인 면 (1)

봉사에 대한 정의적인 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물론, 돌아가신 후에도 제사를 지내거나 산소를 잘 돌보겠다」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봉사의 행동적 측면은 초등학생에게 질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정의적 측면만을 조사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확실히 그렇다’ 82.2%와 ‘대체로 그렇다’

16.1%로 긍정적 반응이 98.3%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0.5%와 ‘확실히 그렇지 않다’ 1.2%로 부정적 반응이 1.7%로 나타났다.

이것을 배경 원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 통계량을 이용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봉사에 대한 정의적인 면 (1)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물론, 돌아가신 후에도 제사를 지내거나 산소를 잘 돌보겠다	589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계
		1.2	0.5	16.1	82.2	10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N (%)	χ^2	df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성별	남	315 (53.5)	1.1	3	1.6	0.6	16.2	81.6
	여	274 (46.5)			0.7	0.4	16.1	82.8
가족	핵가족	456 (77.4)	25.6	18	1.5	0.2	15.1	83.1
	대가족	87 (14.8)			0.0	0.0	18.4	81.6
	아버지	7 (1.2)			0.0	0.0	28.6	71.4
	어머니	21 (3.6)			0.0	4.8	19.0	76.2
	조부모	15 (2.5)			0.0	6.7	20.0	73.3
	친척	2 (0.3)			0.0	0.0	50.0	50.0
	혼자	1 (0.2)			0.0	0.0	0.0	100.0
친척	왕래함	453 (76.9)	4.9	3	0.9	0.2	15.9	83.0
	왕래안함	136 (23.1)			2.2	1.5	16.9	79.4
종교	불교	289 (48.8)	17.0	15	0.3	0.3	14.2	85.1
	개신교	67 (11.4)			4.5	1.5	17.9	76.1
	천주교	88 (14.9)			1.1	0.0	17.0	81.8
	유교	3 (0.5)			0.0	0.0	0.0	100.0
	기타종교	28 (4.8)			3.6	0.0	28.6	67.9
	종교없음	114 (19.4)			0.9	0.9	16.7	81.6
학 력	초등학교	24 (4.1)	23.1*	15	8.3	4.2	8.3	79.2
	중학교	66 (11.2)			0.0	0.0	21.2	78.8
	고등학교	314 (53.3)			0.6	0.3	16.2	82.8
	대학(교)	158 (26.9)			1.3	0.6	15.8	82.3
	대학원	27 (4.6)			3.7	0.0	11.1	85.2

직업	농·어업	119 (20.2)	21.6	21	0.8	0.0	20.2	79.0
	상업	139 (23.6)			1.4	0.0	19.4	79.1
	공업	39 (5.1)			0.0	0.0	16.7	83.3
	공무원	82 (13.9)			1.2	1.2	14.6	82.9
	회사원	86 (14.6)			1.2	0.0	11.6	87.2
	운수업	60 (10.2)			1.7	1.7	11.7	85.0
	노동	57 (9.7)			1.8	0.0	15.8	82.5
	직업없음	16 (2.7)			0.0	6.3	6.3	87.5

* p < .05

<표 I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구성원에 따른 결과를 ‘확실히 그렇다’의 반응을 보인 결과를 보면, <핵가족>83.1%, <대가족>81.6%, <어머니>76.2%, <조부모>73.3%, <아버지>71.4% 이었으며. <대가족>과 <아버지하고만 사는 가정>의 학생은 부정적 반응에 응답하지 않았다.

친척 교류 정도에 따른 반응은 <친척 교류가 많은 가정>이 더 긍정적이었다.

가족이 믿고 있는 종교에서 전체의 결과(82.2%)보다 낮은 종교는 <기타 종교>67.9%, <개신교>76.1%, <종교 없음>81.6%, <천주교>81.8%였다.

보호자의 학력에 따른 반응의 결과를 보면, ‘확실히 그렇다’의 강한 긍정적 반응에 가장 높게 반응한 학력은 <대학원>85.2% 이었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은 학력은 <중학교> 이었다.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므로 보호자의 학력에 따른 효도에 대한 태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보호자의 직업에 따른 반응의 결과에서 ‘확실히 그렇다’의 전체의 반응의 결과(82.2%)보다 낮게 나타난 보호자의 직업은 <농·어업>79.0%, <상업>79.1% 뿐이었다.

2) 봉사에 대한 정의적인 면 (2)

봉사에 대한 정의적인 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즈음 조상의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후손의 도리로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확실히 그렇다’ 68.1%와 ‘대체로 그렇다’ 22.2%로 긍정적 반응이 90.3%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5.6%와 ‘확실히 그렇지 않다’ 4.1%로 부정적 반응이 9.7%로 나타났다.

이것을 배경 원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x²검증 통계량을 이용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표 IV-16> 봉사에 대한 정의적인 면 (2)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요즈음 조상의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후손의 도리로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95	4.1	5.6	22.2	68.1
					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연 령	변 인	변인구성비 N (%)	χ ²	d.f.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별	남	315 (53.5)	4	3	5.1	7.0	21.6	66.3
	여	274 (46.5)			2.9	4.0	23.0	71.1
족	핵가족	456 (77.4)	70	81	4.4	6.4	22.6	66.7
	대가족	87 (14.8)			3.4	4.6	21.8	71.1
	야채	7 (1.2)			0.0	0.0	28.6	71.4
	여러	21 (3.6)			0.0	0.0	19.0	80.0
	가족	15 (2.5)			6.7	0.0	20.0	73.3
	친척	2 (0.3)			0.0	0.0	0.0	100.0
	혼자	1 (0.2)			0.0	0.0	0.0	100.0
친척	양친	453 (76.9)	6	3	3.1	5.1	22.7	69.1
	양친	136 (23.1)			7.4	7.4	20.6	64.7
교	불교	289 (48.8)	6	51	3.1	4.2	20.1	72.7
	개교	67 (11.4)			4.5	11.9	29.9	53.7
	천교	88 (14.9)			6.8	5.7	20.5	67.0
	유교	3 (0.5)			0.0	3.3	0.0	67.0
	제교	28 (4.8)			10.7	3.6	35.7	50.0
	종교없음	114 (19.4)			2.6	5.3	21.9	72.2
학	중학교	24 (4.1)	6	51	4.2	12.5	16.7	66.7
	중학교	66 (11.2)			3.0	9.1	24.2	63.6
	고등학교	314 (53.3)			4.1	4.1	24.2	66.6
	대학교	158 (26.9)			3.8	5.1	17.1	74.0
	대학원	27 (4.6)			7.4	11.1	29.6	59.9
업	농업	119 (20.2)	8	12	0.8	6.7	19.3	73.3
	상업	139 (23.6)			3.6	6.5	24.5	65.5
	공업	39 (5.1)			10.0	16.7	16.7	56.7
	공무원	82 (13.9)			4.9	2.4	23.2	69.5
	화원	86 (14.6)			2.3	3.5	22.1	72.1
	운수업	60 (10.2)			8.3	8.3	26.7	56.7
	노동	57 (9.7)			7.0	0.0	21.1	72.9
	직업없음	16 (2.7)			0.0	6.3	18.8	76.0

* p < .05

<표 IV-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확실히 그렇다’에 대한 반응의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친척 교류 정도에서 <친척이 자주 왕래하는 가정>의 학생이 봉사 의식에 <친척이 자주 왕래하지 않는 가정>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가족이 믿고 있는 종교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므로 가족이 믿고 있는 종교에 따른 효과에 대한 태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부정적 반응에서 전체의 결과(9.7%)보다 높은 종교는 <천주교>12.5%, <기타 종교>14.3%, <개신교>16.4%였다.

보호자의 학력에 따른 결과를 보면 ‘확실히 그렇다’에 가장 낮은 반응을 한 학력은 <대학원>51.9% 이고 가장 높은 학력은 <대학(교)>74.0% 이었다.

보호자의 직업에 따른 결과에서 ‘확실히 그렇다’의 전체의 결과(68.1%) 보다 낮게 나타난 보호자의 직업을 보면 <공업·운수업>56.7%, <상업>65.5%, <공무원>69.5% 이었다.

9. 양친 의식

1) 양친에 대한 정의적인 면(1)

양친에 대한 설문은 행동적인 면의 질문을 만들지 않았다. 양친이란 개념 자체가 미래지향적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친에 대한 정의적인 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집안과 조상의 명예를 빛내게 하는 일이라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확실히 그렇다’ 18.3%와 ‘대체로 그렇다’ 57.0%로 긍정적 반응이 75.3%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21.6%와 ‘확실히 그렇지 않다’ 3.1%로 부정적 반응이 24.7%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부정적인 면도 24.7%여서 희생정신이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배경 원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 통계량을 이용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표 IV-17> 양친에 대한 정의적인 면 (1)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계
		확실히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집안과 조상의 명예를 빛나게하 는 일이라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	95	3.1	21.6	57.0	18.3	10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연 령	변 인	변인구성비 N (%)	3	df	반 응 구 분 (%)			
					확실히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별칭	남	315 (535)	38*	3	4.4	162	54.0	24
	여	274 (465)			1.5	277	60.6	12
숙	학부	46 (77.4)	6	81	2.6	219	56.8	16
	대부	87 (14.8)			5.7	207	57.5	11
	야기	7 (1.2)			0.0	286	42.9	26
	여기	21 (36)			4.8	190	57.1	10
	작교	15 (2.5)			0.0	200	60.0	20
	친척	2 (0.3)			0.0	0.0	100	00
	혼자	1 (0.2)			0.0	0.0	100	00
친척	양합	453 (769)	5	3	2.6	216	56.7	10
	양친합	136 (231)			4.4	213	58.1	12
교종	불교	289 (488)	8	51	2.8	176	60.2	14
	개교	67 (11.4)			6.0	284	49.3	14
	천교	88 (14.9)			1.1	330	47.7	12
	유교	3 (0.5)			0.0	0.0	66.7	33
	재교	28 (4.8)			7.1	143	57.1	24
	종교없음	114 (19.4)			2.6	211	60.5	18
학	초학	24 (4.1)	6	51	0.0	375	45.8	17
	중학	66 (11.2)			0.0	273	56.1	17
	고학	314 (533)			2.9	210	60.2	19
	대학	158 (269)			5.1	177	54.4	28
	대학원	27 (4.6)			3.7	222	48.1	29
업	농업	119 (20.2)	35	12	1.7	235	58.0	18
	상업	139 (23.6)			2.9	273	58.3	15
	공업	39 (5.1)			0.0	133	43.3	43
	공원	82 (13.9)			6.1	244	45.1	24
	화원	86 (14.6)			5.8	151	60.5	16
	운업	60 (10.2)			0.0	217	63.3	10
	노동	57 (9.7)			3.5	123	64.9	13
	직업없음	16 (2.7)			0.0	250	56.3	18

* p < .05, *** p < .001

<표 IV-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결과에서 남자가 긍정적인 반응에서 여자보다 높게 반응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므로 성별에 따른 효도에 대한 태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가족의 구성에서 전체의 강한 긍정적 반응(18.3%)보다 높은 가정을 보면, <핵가족>18.6%, <어머니하고만>20.0%, <아버지하고만>28.6% 이었다.

보호자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확실히 그렇다’의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의 직업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므로 보호자의 직업에 따른 효도에 대한 태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보호자의 직업에 따라 ‘확실히 그렇다’의 반응을 전체의 결과(18.3%)보다 높게 반응한 보호자의 직업을 보면, <공업>43.3%, <공무원>23.3%, <회사원>19.3%, <직업 없음>18.8% 이었다.

2) 양친에 대한 정의적인 면 (2)

양친에 대한 정의적인 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되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확실히 그렇다’ 56.2%와 ‘대체로 그렇다’ 32.9%로 긍정적 반응이 89.1%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9.5%와 ‘확실히 그렇지 않다’ 1.4%로 부정적 반응이 11.3%로 나타났다. 부정적 반응에서 정의적 측면(1)의 반응(24.7%)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희생은 피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순된 의식이 자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배경 원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 통계량을 이용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8>과 같다.

<표 IV-18> 양친에 대한 정의적인 면 (2)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확실히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계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되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589	1.4	9.5	32.9	56.2	10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N (%)	x ²	df	반응구분(%)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성별	남	315 (53.5)	2.7	3	1.0	11.1	32.7	55.2
	여	274 (46.5)			1.8	7.7	33.2	57.3
가족	핵가족	456 (77.4)	11.8	18	1.8	8.6	32.2	57.5
	대가족	87 (14.8)			0.0	13.8	35.6	50.6
	아버지	7 (1.2)			0.0	0.0	28.6	71.4
	어머니	21 (3.6)			0.0	19.0	38.1	42.9
	조부모	15 (2.5)			0.0	6.7	40.0	53.3
	친척	2 (0.3)			0.0	0.0	0.0	100.0
	혼자	1 (0.2)			0.0	0.0	0.0	100.0
친척	왕래함	453 (76.9)	7.4*	3	0.9	9.1	31.3	58.7
	왕래안함	136 (23.1)			2.9	11.0	38.2	47.8
종교	불교	289 (48.8)	15.3	15	1.0	9.7	30.1	59.2
	개신교	67 (11.4)			1.5	11.9	28.4	58.2
	천주교	88 (14.9)			0.0	11.4	44.3	44.3
	유교	3 (0.5)			0.0	0.0	66.7	33.3
	기타종교	28 (4.8)			3.6	3.6	28.6	64.3
	종교없음	114 (19.4)			2.6	7.9	34.2	55.3
학 력	초등학교	24 (4.1)	6.5	15	0.0	12.5	33.3	54.2
	중학교	66 (11.2)			0.0	13.6	34.8	51.5
	고등학교	314 (53.3)			1.9	8.3	31.8	58.0
	대학(교)	158 (26.9)			1.3	10.1	34.8	53.8
	대학원	27 (4.6)			0.0	7.4	29.6	63.0
직 업	농·어업	119 (20.2)	12.2	21	2.5	9.2	37.0	51.3
	상업	139 (23.6)			1.4	12.9	30.2	55.4
	공업	39 (5.1)			0.0	0.0	33.3	66.7
	공무원	82 (13.9)			1.2	8.5	34.1	56.1
	회사원	86 (14.6)			1.2	9.3	30.2	59.3
	운수업	60 (10.2)			0.0	10.0	26.7	63.3
	노동	57 (9.7)			1.8	8.8	38.6	50.9
	직업없음	16 (2.7)			0.0	6.3	37.5	56.3

* p < .05

<표 IV-18>에서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족 구성의 강한 긍정적 반응에서 전체의 결과(56.2%) 보다 높은 가정을 보면, <아버지하고만 사는 가정>의 학생이 71.4%로 가장 높고 <핵가족>이 57.5%였다.

친척 교류 정도에 따른 결과는 <친척이 왕래가 많은 가정>의 학생이 <그렇지 않는 가정>의 학생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므로 친척 교류 상황에 따른 효 의식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보호자의 학력에 따른 결과를 보면, 강한 긍정적 반응에서 <대학원>이 63.0%로 가장 높고 <중학교>가 51.5%로 가장 낮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효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그 실천 덕목인 효 요소를 선행연구물과 문헌을 통하여 9가지로 추출하고 효 요소의 용어도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이 효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 방법을 보면,

첫째, 응답자의 독립 변인으로 학생 성별, 가족 상황, 친척의 교류 상황, 가족이 믿는 종교, 보호자의 학력, 보호자의 직업 6가지를 사용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종속 변인으로는 <보신: 건강의 중요함>, <공경: 부모 존경과 가족애>, <순종: 가정의 질서와 조화>, <시봉: 봉사와 인간 존중>, <양지: 부모 존경 의식>, <봉양: 부모 은혜 보답>, <간언: 정의와 진실>, <봉사: 가정의 전통과 조상 숭배>, <양친: 명예 존중과 성실> 9가지 효 요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셋째, 효 요소는 다시 행동적 측면, 정의적 측면의 2가지 의식 영역으로 나누어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봉사와 양친의 효 요소는 초등학교의 실제 행동적 측면을 조사하기가 어려워 정의적 측면만을 조사하였다.

넷째, 조사 결과의 처리 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코드화 하여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백분율, χ^2 , df, p 를 구하기 위해 전산 처리하였다. 통계처리는 χ^2 에 의하고 먼저 각 문항마다 전체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하고, 문항의 응답 변인에 따라 의미 있는 것과 백분율(%)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제주도 전체의 초등학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별 인원수를 고려하여 17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남 315명, 여 274명, 모두 5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보신 의식

행동적인 면에서 긍정적 반응이 94.8%, 부정적 반응이 5.2%로 나타났고, 정의적인 면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90.1%, 부정적 반응이 9.9%로 나타나서 보신에 대한 효 의식은 행동과 정의적인 면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행동에선 부모님에게 보신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나 정의적인 면에서 낮아 가는 결과로 보아 자기 신체 보호에 대한 바른 효 의식이 실천 행위로 옮길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이 <여자>가 높았고,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아버지와 동거>가 높았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어머니와 동거>가 높았다. 친척 교류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왕래함>이 높았다. 이것으로 보면 친척끼리의 화합이 아동에게도 큰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대학교>가 높았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초등학교>가 높았다.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공업>이 높았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농·어업>이 높았다.

② 공경 의식

부모님에게 높임말을 쓰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 반응이 53.5%, 부정적 반응이 46.5%로 나타났지만, ‘확실히 실행하고 있는 학생’이 8.1%에 불과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의적인 면에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존경하는 의식 수준이 행동적인 면의 긍정적 반응(53.5%)보다 상당히 높은 결과(93.2%)가 나왔다. 높임말을 쓰는 것만으로 학생들이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안하고를 대표할 수는 없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예절교육이 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이 <남자>가 높았고,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조부모와 동거>가 높았고, 친척 교류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왕래함>이 높았다. 가족의 종교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기타 종교>가 높았으며, 정의적인 면에서 긍정적 반응은 <천주교>가 높았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대학원>이 가장 높았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다.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노동>, <직업 없음>이 높았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상업>이 가장 높았다.

③ 순종 의식

행동적인 면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78.5%로 나타났고, 부정적 반응도 21.6%로 나타났다. 정의적인 면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18.9%로 나타났고, 부정적 반응이 81.1%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심부름이나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조그만 지시에는 잘 따르려는 행동을 보이나, 앞으로의 중대한 생활에 대해선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권위주의의 도전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 급격한 문화의 변

화에 따른 합리주의, 평등사상이 깊숙히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효 의식도 기성 세대가 걱정하는 수준처럼 일련의 효의 위기적인 사회적 현상과 다르게 낮은 것은 아님을 시사해준다.

성별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이 <남자>가 높았고,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어머니와 동거>가 높았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아버지와 동거>가 높았다. 친척 교류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왕래함>이 높았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왕래안함>이 높았다. 부모의 종교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개신교>가 가장 높았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천주교>가 가장 높았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대학원>이 가장 높았다.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상업>이 가장 높았다.

④ 시봉 의식

행동적인 면에서 긍정적 반응이 72.7%, 부정적 반응이 27.3%로 나타났다. 정의적인 면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긍정적 반응이 97.3%, 부정적 반응이 2.7%에 불과했다. 부모와 확실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가정은 18%에 불과하여 자기중심적인 생활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인관계에 비협조적이고 적절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와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볼 수 있으나, 행동적인 면의 결과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다변화의 사회가 되면서 부모님 곁에서 항상 모시기는 어려운 세상이 되었으나 현대에 맞는 '시봉'의 참 뜻을 깨우쳐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성별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이 <여자>가 높았고,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아버지와 동거>가 높았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아버지와 동거>, <어머니와 동거>, <대가족>이 100%로 높았으나 다른 가정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친척 교류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왕래함>이 높았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대학원>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의 강한 긍정적 반응(82.9%)보다 높은 반응을 나타낸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이었다. 부모의 직업에 따른 결과를 보면, 행동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공업>이 가

장 높았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직업없음>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전체의 강한 긍정적 반응(82.9%)보다 높은 반응을 나타낸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이었다.

⑤ 양지 의식

행동적인 면에서 긍정적 반응이 83.9%, 부정적 반응이 27.3% 나타났다. 정의적인 면에서 긍정적 반응이 38.7%, 부정적 반응이 27.3% 나타났다. 행동적인 면의 긍정적 반응과는 대조를 보인다. 확실하게 부모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자제하려는 아동이 12.4%에 불과하여 개인주의, 자유분방함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깊이 새겨져 가고 있다. 가업을 잇겠다는 질문에 38.5%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면, 학생이 부모의 직업에 대한 회의와 부모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회의에서 나오는 현상이라 짐작이 되며, 이는 전통적인 '양지의 효' 의식에서 볼 수 있는 절대성에 비추어 볼 때, '양지의 효' 의식이 퇴색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이 <남자>가 높았고,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아버지와 동거>가 가장 높았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조부모와 동거>가 가장 높았고, 친척 교류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왕래함>이 높았다. 가족의 종교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기타종교>가 가장 높았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천주교>가 가장 높았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대학원>이 가장 높았고, 부모의 직업에 따른 결과를 보면, 행동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농·어업>이 가장 높았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운수업>이 가장 높았다.

⑥ 봉양의 효

행동적인 면에서 긍정적 반응이 82.6%, 부정적 반응이 27.3% 나타났다. 그리고 정의적인 면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긍정적 반응이 88.5%, 부정적 반응이 11.6% 나타났다. 긍정적 반응에서 행동적인 면의 결과와 비슷하여 부모를 위해 자기의 힘이 닿는 한 받들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씨가 아직까지는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급속한 핵가족화로 봉양의 효 의식이 낮아진다는 여론이 있지만 본 의식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효 의식이 낮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심성도 교육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사회에서 성인들이 일으키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리라 생각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 <남자>가 ‘확실히 그렇다’의 강한 긍정적 반응이 높았고,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대가족>이 가장 높았다. 친척 교류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왕래함>이 높았고, 가족의 종교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불교>가 가장 높았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기타 종교>가 가장 높았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학력이 높음과 관련이 있었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대학원>이 가장 높았다.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노동>이 가장 높았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직업 없음>이 가장 높았다.

⑦ 간언 의식

행동적인 면에서 긍정적 반응이 61.8%로 나타났고, 부정적 반응이 38.2%로 나타났으며, 정의적인 면에서 긍정적 반응이 90.1%로 나타났고, 부정적 반응이 9.9% 나타났다.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못하면 그 옳지 못함을 얘기하는 학생이 38.2%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자식이 간언을 하면 들어주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아 학생들의 의식이 바뀌어 졌음을 알 수 있으며, 어른들도 과거의 권위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여 자기의 자녀도 한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 <여자>가 긍정적 반응이 높았고,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아버지와 동거>가 가장 높았다. 친척 교류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왕래함>이 높았다. 가족의 종교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개신교>가 가장 높았고,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천주교>가 가장 높았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학력이 높음과 관련이 있었다.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는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공무원>이 가장 높았다.

⑧ 봉사 의식

봉사의 효 의식은 정의적인 면만을 조사하였다. 첫째 질문에서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물론, 돌아가신 후에도 제사를 지내거나 산소를 잘 돌보겠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고, 나타난 결과를 보면 긍정적 반응이 98.3%로 나타났고, 부정적 반응이 1.7%로 나타났다. 둘째 질문에서는 “요즈음 조상의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

은 후손의 도리로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고, 나타난 결과를 보면 긍정적 반응이 90.3%로 나타났고, 부정적 반응이 9.7%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면 예상과는 달리 제주도 초등학생의 조상숭배의식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제사를 소홀히 함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성인들의 봉사에 대해 고쳐야 할 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긍정적 반응이 높았다. <남자>와 근소한 차이이나 <여자>도 봉사에 대해 높은 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특이한 결과이다.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부정적 반응이 <핵가족>이 가장 높았고, 친척 교류에 따라서는, 긍정적 반응은 <왕래함>이 높았다. 가족의 종교에 따라서는 부정적 반응은 <개신교>가 가장 높았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부정적 반응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으며,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는 부정적 반응은 <공업>이 가장 높았다.

⑨ 양친 의식

양친의 효 의식 조사도 정의적인 면의 질문만을 제시하였다.

첫째 질문은 ‘자기 희생’으로 “집안과 조상의 명예를 빛내게 하는 일이라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고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반응 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75.3%, 부정적 반응이 24.7%로 나타났다. 둘째 질문은 ‘입신양명’으로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되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고, 나타난 결과를 보면 긍정적 반응이 89.1%, 부정적 반응이 11.3%로 나타났다. 첫째 질문에서 부정적 반응이 24.7%에서 둘째 질문의 부정적 반응이 11.3%로 변화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자신의 희생은 피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순된 의식이 자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자기 희생’에 있어서의 긍정적 반응은 <남자>가 높았고, ‘입신양명’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여자>가 높았다.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자기 희생’에 있어서의 부정적 반응은 <아버지와 동거>가 높았고, ‘입신양명’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어머니와 동거>가 높았다. 친척 교류에 따라서는 ‘자기 희생’과 ‘입신양명’에 있어서의 긍정적 반응은 <왕래함>이 높았다. 가족의 종교에 따라서는 ‘자기 희생’에 있어서의 긍정적 반응은 <불교>가 높았고, ‘입신양명’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기타 종교>가 높았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자기 희생’에 있어서의 부정적 반응은 <초등학교>가 높았고, ‘입신양명’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상업>이 높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들의 <확실한 긍정적 반응>은 행동적인 면에서 보신, 봉양, 순종, 시봉, 간언, 양지, 공경 순 이었으며, 정의적인 면에서는 시봉, 봉사, 공경, 양친, 봉양, 보신, 간언, 양지, 순종 순 이었다. 이를 통해서 보면 행동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 사이에 서로 다른 의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② 변인 별로 의미가 있는 독립 변인의 빈도는 학생 성별 응답 상황 8가지, 친척 교류 상황 6가지, 보호자의 학력 상황 5가지, 종교 상황 2가지, 직업 상황 1가지였다.

③ 독립 변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첫째, 학생의 성별에 따른 결과에서 과거에 효도하면 우선 남자를 우선 떠올리는 데 현재에 와서는 오히려 여자가, 행동적인 측면에서, 공경, 순종 그리고 정의적 측면에서 공경, 순종, 양지를 제외한 효 요소에 남자보다 앞서고 있다.

둘째, 친척 교류 상황에서 가정에 친척이 자주 왕래하는 것이 학생의 효 의식 함양에 큰 도움을 줌을 알 수 있다.

셋째, 보호자의 학력 상황에서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효 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고, 동시에 개인주의도 높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전반적으로 행동적인 실행에는 반응이 낮으나 정의적 측면에는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본 결과에 의하면, 오늘날 제주도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효 의식 수준은 성인들이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생명 존중, 바른 몸가짐, 부모에게 높임말 쓰기, 부모와 대화나누기, 부모 말씀 따르기 등 기본적인 예절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기본적인 예절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도덕적 행동과 의식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인성교육을 위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효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를 토대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효 요소와 그렇지 못한 효 요소를 잘 조화하여 교육하고, 학생 성별과 친척 교류, 보호자의 학력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한다면 효 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학생의 인성교육이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강재륜(1991), 「현대사회와 윤리교육」, 대왕사.
- 김문해 역(1991), 「맹자」, 일신서적출판사,
- 김성원 역(1994), 「격몽요결」, 명문당.
- 김영수 역(1991), 「대학·중용」, 일신서적출판사.
- 김익수(1983), 「효경대의」, 수덕문화사
- 김중서·최정숙(1992), 「교육연구법」, 한국방송대학교출판사.
- 김태길 외(1988), 「한국사회와 시민의식」, 문음사.
- 김태길(1994), 「윤리학」, 박영사.
- 고범서(1992), 「가치관연구」, 나남.
-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유과정 해설(Ⅲ)-국어,도덕,사회」,서울특별시인쇄공업
조합.
- (199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도덕)」,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권오돈 역(1987), 「예기」, 홍신문화사.
- 금장태(1991), 「유교사상의 문제들」, 여강신서 9. 여강출판사.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편(1985), 「경로효친의 교육」, 농원문화사.
- 양근석(1994), 「한국사상과 윤리」, 형설출판사.
- 윤태림(1994), 「한국인의 성격」, 동방도서주식회사.
- 이가원 역(1988), 「논어」, 홍신문화사.
- 이기석·한백우 역(1988), 「논어」, 홍신문화사,
- 이병호(1994), 「도덕전서」, 도덕성회복국민운동본부.
- 이영호(1977), 「한국인의 가치관」, 일지사.
- 이준호(1973), 「율곡의 사상」, 현암사.
- 임희섭(1987),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나남.
- 조명기 외(1994), 「한국사상의 심층」, 우석출판사.
- 최근덕(1995), 「유학강의」, 성균관출판사.
- 한국공자학회(1986), 「공자사상과 현대」, 사상사회연구소.
- 한국국민윤리학회편(1994), 「국민윤리학개론」, 형설출판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전통윤리의 현대적 조명」, 천풍인쇄주식회사.

황병국 역(1990), 「효경」, 혜원출판사.

황준연(1995), 「한국사상의 이해」, 박영사.

<논 문>

강석봉(1994), "전통적 효요소에 의한 효의식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고운진(1989), "초등학교의 학급풍토와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금장태(1985), "현대 한국사회와 전통적 가치관" 「논문집」, 제21호, 국민윤리연구회.

박선민(1997), "부산시내 초·중등학생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백승기(1979), "효사상과 국민총화" 「논문집」, 국민윤리연구회.

신정남(1996), "효사상의 현대적 조명",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96), 「한국사회의 도덕성 제고를 위한 진단과 처방」, 연구보고서, 정문출판.

안봉희(1996), "효도 사상과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창범(1978), "한국충효사상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오세정(1997), "한국전통사상에서의 효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용문(1996), "고시조에 나타난 충·효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인균(1997), "효의 인식과 가정환경",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진현(1982), "한국충효사상의 발달에 관한 사적 고찰" 「논문집」, 제14집, 국민윤리연구회.

이광규(1996), 「사회개혁과 시민의식」, 아산문화재단.

이상순(1981), "효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12집, 국민윤리연구회.

이수배(1997), "초등학생의 인성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수무(1983), “효의 철학적 근거” 「논문집」, 제16집, 국민윤리연구회.
- 정창수(1990), “충효윤리의 교육적 전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창우(1990), “덕교육의 특성 및 원리에 관한 연구” 「논문집」, 국민윤리연구회.
- 조기석(1998), “‘효’사상에 나타난 윤리적 문제의 비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학교 교육대학원
- 최순호(1996), “초등학교 학생의 효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
교 교육대학원

<기타문헌>

- 고사성어사전간행회 편(1961), 「고사성어사전」, 학원사.
- 신기철·신용철(1988),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 유정기 편(1965), 「동양사상사전」, 우문당출판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5)」, 웅진출판주식회사.



[Summary]

**A Study o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Hyo(孝) Consciousness in Cheju-do**
- Centering around the 6th grade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

Ko, In-Ho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Bang-Ju

In this study, I drew out 9 traditional Hyo-elements from established materials and literatures and defined the fundamental notions of Hyo-elements. So, a survey was conducted of primary school children to find out their degree of consciousness of the Hyo-elements.

The details of this study are :

First, the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respondents, 6 items, such as children's sex, situation of family, the degree of relatives relation, religion of family, parents' education and parents' occupation were set.

Second, the subordinate variables, 9 items of Hyo-elements such as <Self-protection : Importance of health>, <Respect : Respect of parents and love of family>, <Obedience : Order and harmony of family>, <Serving : Service and human esteem>, <Understanding : Consciousness of parents' respect>, <Supporting : Returning to parents' love>, <Advising : Justice and truth>, <Supporting parents : Honor,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esteem and sincerity>, <Sacrificial rites : Admiration of family traditions and forefathers> were drawn out.

Third, Hyo-elements were classified into 2 aspects, behavior and affection and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by the attitude aspects. Fourth, the dealing method to study result used the SPSS program coding the collected materials and used a computer for calculating percentage, χ^2 , df and p.

Fifth, this survey considered the number of students in city and country to heighten the generality on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in Cheju-do. The objects of this survey included 315 male and 274 female children each totaling 589 of the selected 17 elementary schools.

The results of this survey could be outlined as the follows.

1. 'Certain positive response' of primary students in Cheju-do in the aspect of behavior can be put in order of self-protection, supporting, obedience, serving, advising, understanding and respect, while in the aspect of affection the order was as follows; serving, sacrificial rites, respect, supporting parents, self-protection, advising, understanding, obedience.

2. It is noted that :

First, among the result of students' sex, women are preceding to man in Hyo-elements except respect, obedience in the aspect of behavior and respect, obedience, and understanding in the aspect of affection.

Second, in the situation of relatives' relation, we could recognize that friendly intercouring each other can help to enhance Hyo consciousness of students.

Third, considering the level of parents' education, we found that the higher the parents' education, the higher Hyo consciousness is. On the other hand, the Hyo consciousness tended to be egocentric.

Summarizing these above things :

The Hyo consciousness of the 6th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in Cheju-do was not anxious level to adult until now. But we

could know that they were low in fundamental sense of politeness. It is urgent to enhance the education of the fundamental sense of politeness. As being cleared from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the Hyo-elements that children accept positively and negatively and they have unsatisfactory recognition.

Therefore, the author believes that strengthening of the Hyo-education according to children's sex, relatives relation and parents' education will contribute to proper human education for primary children.



부 록



설 문 지

이 질문 조사지는 효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주실 이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솔직한 의견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방법은 글을 잘 읽고 아래 쪽 숫자 위에 생각의 정도에 따라 '○'표를 하면 됩니다.

이 자료는 연구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치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1999년 2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 전공 고 인 호

<기 초 조 사>

※ 다음 글을 읽어 보고 해당되는 것을 ()안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성별 : 남자(), 여자()

2. 가족 상황은 ?

- ① 부모님<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계심>하고만 산다 ()
- ② 부모님과 할아버지(할머니) 혹은 가까운 친척과 함께 산다 ()
- ③ 아버지하고만 산다 ()
- ④ 어머니하고만 산다()
- ⑤ 할아버지(혹은 할머니)하고만 산다 ()
- ⑥ 친척집에서 산다 ()
- ⑦ 혼자 또는 형제(자매)하고만 산다 ()
- ⑧ 기타 ()

3. 우리 집안 친척의 왕래 상황은 ?

- ① 자주 왕래하는 편이다. ()
- ② 자주 왕래하지 않는 편이다. ()

4. 내 가족이 믿고 있는 종교는 ?

- ① 불교 () ② 개신교 () ③ 천주교 () ④ 유교 ()
⑤ 기타 종교 () ⑥ 믿는 종교가 없다 ()

5. 부모님의 학력은? <한 사람의 학력만 표시하십시오.>

- ① 초등학교(과거: 국민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④ 전문대, 대학교 () ⑤ 대학원 ()

6. 부모님의 직업은? <한 사람의 학력만 표시하십시오.>

- ① 농·어업 () ② 상업<장사> ()
③ 공업<기계류공장> () ④ 공무원 ()
⑤ 회사원<월급을 받는> () ⑥ 운수업<기사, 차량 이용>()
⑦ 노동<일당을 받거나, 가끔 일을 함>()
⑧ 직업이 없다() ⑨기타 직업<써 주십시오>()



1. 나는 학교에 오갈 때나 밖에 외출할 때 부모님에게 반드시 인사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1	2	3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2. 우리는 부모님이 자주 걱정하는 몸이 다칠 것 같은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3. 나는 항상 부모님께 높임말을 쓰고 있다.

1	2	3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4. 부모님이 남보다 훌륭하지 못하고, 나에게 잘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1	2	3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5. 나는 재미있는 놀이나 만화영화를 보다가도 부모님이 심부름이나 공부를 하라고 하시면 즉시 '예'하고 따른다.

1	2	3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6.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 상대자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나 부모님 말씀에 따라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7. 나는 자주 부모님과 대화를 하며, 조그만 문제도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 조언을 받고 있다.

1	2	3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8. 어른이 되어서 살기가 어려워도 부모님을 무료(돈을 안내는) 양로원으로 보내지 않고 끝까지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9.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자주 되새기며, 항상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한다.

1	2	3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0. 만약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으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1. 나는 부모님이 일하고 돌아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고 위로해드리고 있다.

1	2	3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2.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물건을 보면 가져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1	2	3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3. 나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못한 생각이 들면 그 옳지 않은 것을 말씀드린다.

1	2	3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4. 후에 가정을 꾸리고 살 때 자식이 나의 잘못을 얘기하면 자식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5. 나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물론, 돌아가신 후에도 제사(기독교, 불교식도 포함)를 지내거나 산소를 돌보는 등 잘 모시겠다.

1	2	3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6. 요즈음 돌아가신 부모나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후손의 도리로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1	2	3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7. 나는 우리 집안과 조상의 명예를 빛내게 하는 일이라면 내 자신을 희생(피로움을 받아들이거나, 위험을 각오하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보거나)할 수 있다.

1	2	3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8. 세상(사회)에 나아가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되는 것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1	2	3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